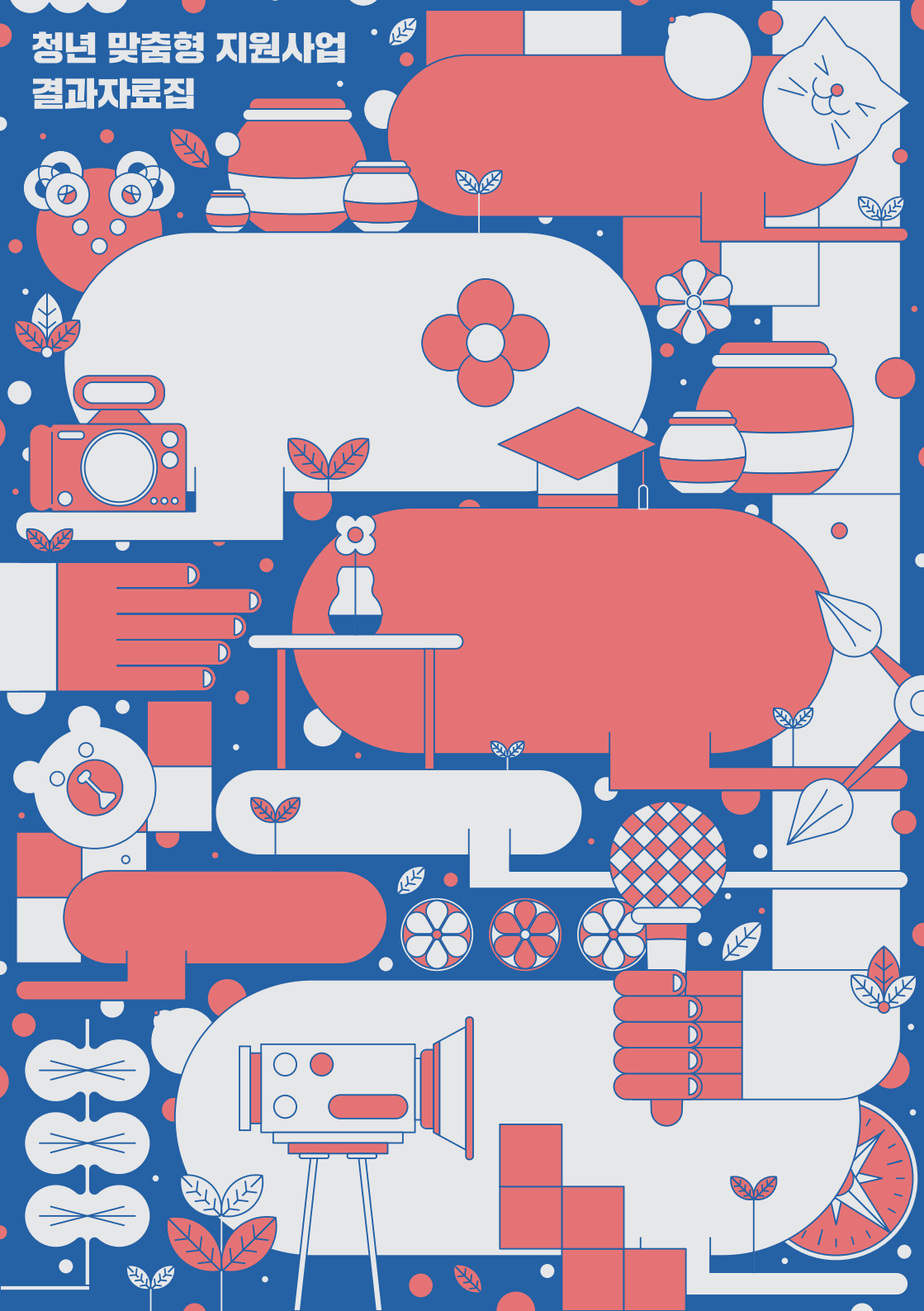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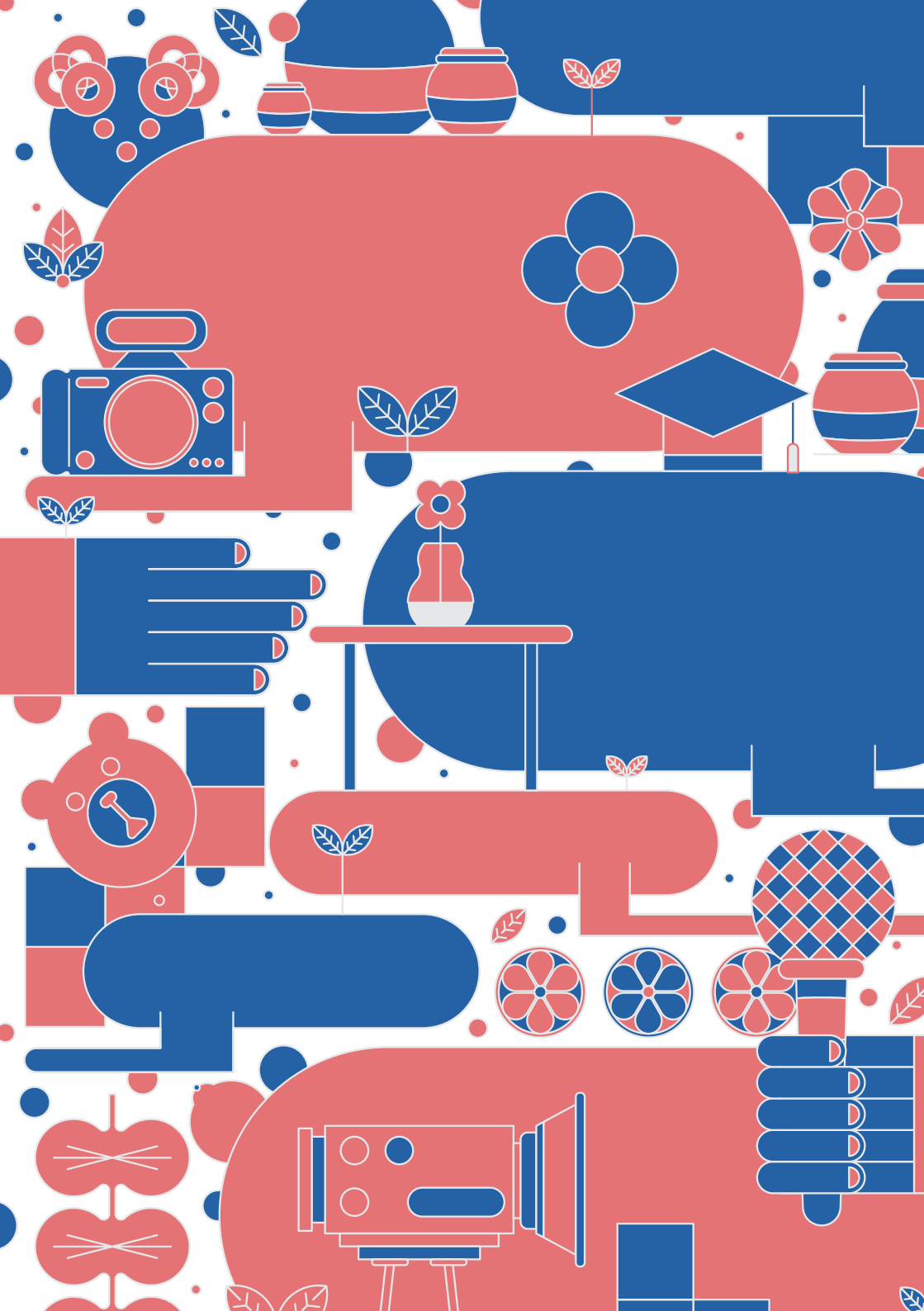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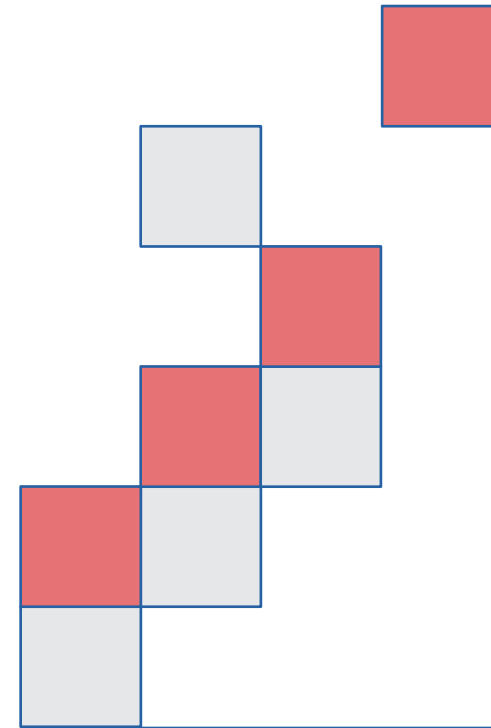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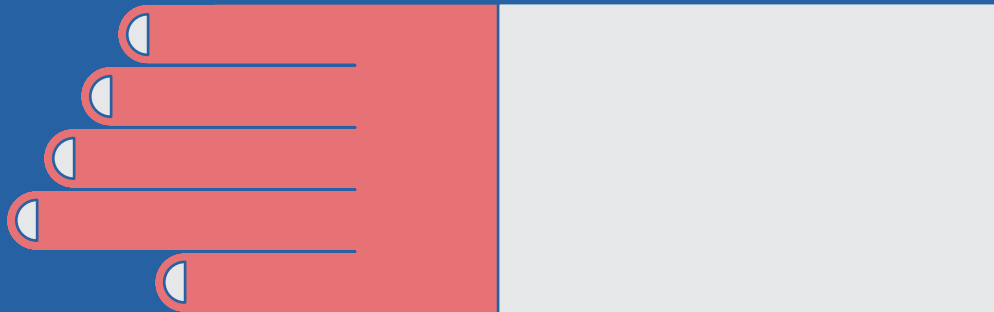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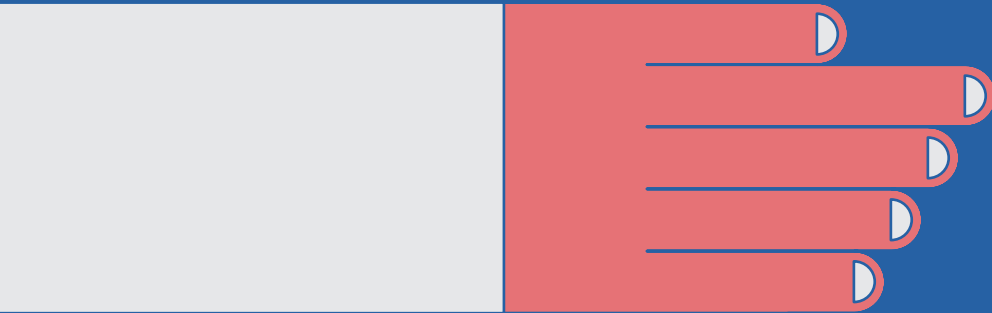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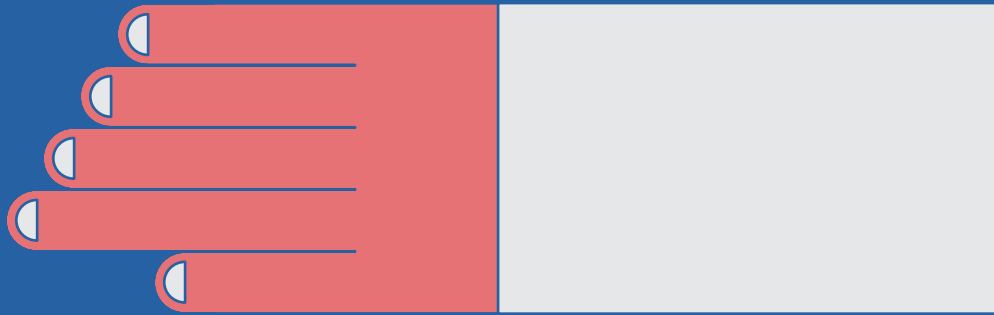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CONTENTS

I. 발간사	04
II.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	06
III.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3년	18
IV. 우리의 이야기 - 참여자, 제작자, 담당자, 심사위원	58
V.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우리가 만났던 이야기	114

I.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정범구입니다.

2021년을 마지막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일단락 지으며 지난 3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오징어게임 열풍까지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과 기회가 많았던 시기적 특성 아래 우리재단은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800여명의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장 영역에서 기업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으로 소비자로서의 청년을 겨냥했다면, 우리재단은 공공 영역에서 청년을 한 명의 개인이자 시민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취·창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 지원'이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경제·사회·정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청년 개개인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0개 제작소에서 진심을 다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신 상담사님들의 노고 덕분일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등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자산인 청년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을 때 사회 혁신과 변화라는 거대한 담론이 현실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재단은 지금까지처럼 우직하면서도 유연하게 청년들을 만나가겠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은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3년이라는 시간이 휘발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우리재단의 성장, 나아가 정책적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사업을 함께 만들어온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기부자님들과 참여청년, 사업 담당자, 상담사, 심사위원까지 우리재단과 뜻을 함께 하여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부터 검은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용맹스러운 호랑이와 까치를 새긴 판화를 대문 앞에 걸며 모든 것이 극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임인년 한 해가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I.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

<사업개요>

추진배경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를 통해 심리, 식생활, 건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제기



“청년 삶의 질(YLI)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한민국 청년 1,769명, 발표: 2017.8.10., 조사기관: 청년재단)

- [경제] 대출상환 부담 92.3% (평균 대출액 691만원)
- [건강]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73.1%
- [주거] 습기가 차는 주거지 거주 51.2%
- [심신허약] 최근 1개월 이내 극도의 우울증 경험 45.4%
- 삶에 대한 만족도 46점 (100점 만점)

사업목적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심층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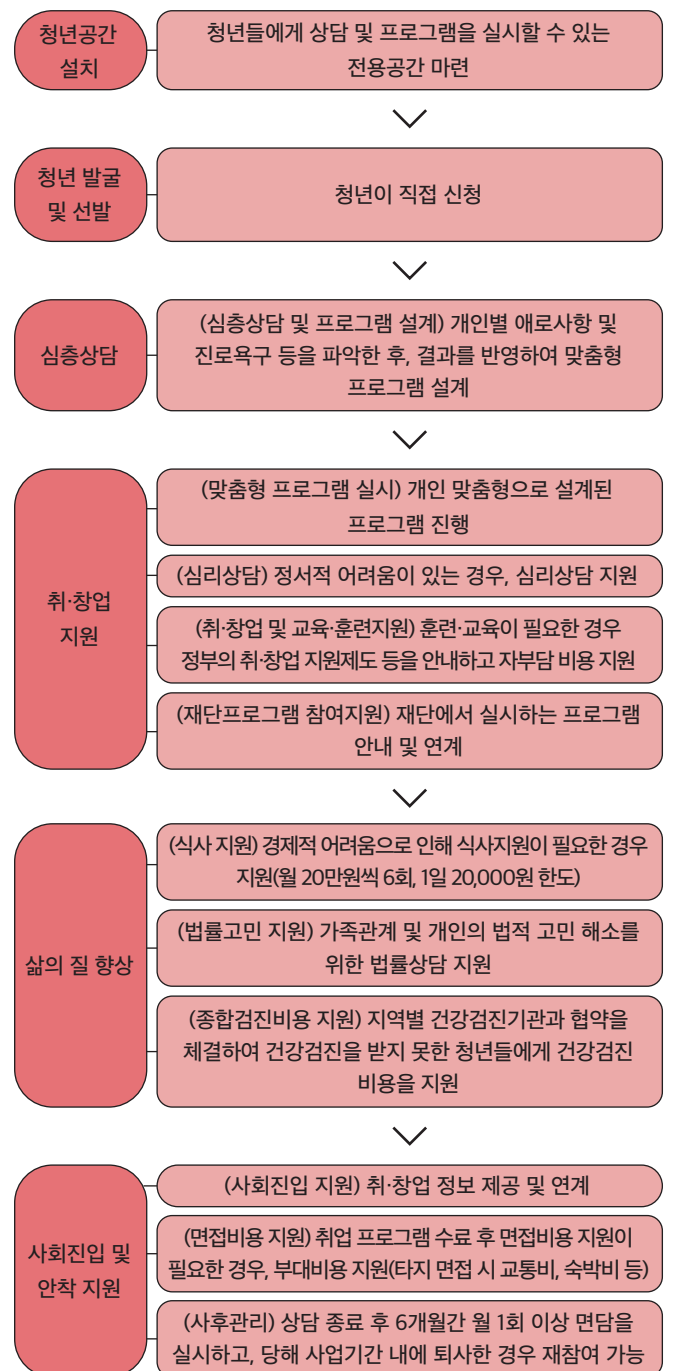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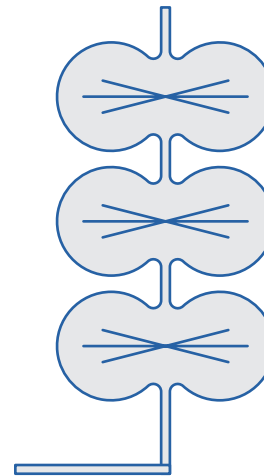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 중 만19~34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사업기간

(1차 연도) 2019.10~2020.12, (2차 연도) 2020.1~2020.12,
(3차 연도) 2021.1~2021.12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기타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청년이 직접 만드는 멘토링(직토링)
- 내용 | 사업 1~3기 참여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1, 2기 참여자가 멘토가 되어 본인의 사례 및 정보 공유
- 추진결과

구분	분야	제목
1	창업	프랜차이즈 요식업 창업자의 창업 도전기
2	직무	취준생, 구름 위로 날다~ 클라우드 엔지니어 취업 성공기
3	진로	코로나19에 '이직준비' 바사삭 멘탈 붙잡기
4	심리	긍정적 에너지 트레이닝 비법
5	창업	프리랜서 강사의 예술계열 취/창업 이야기
6	진로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
7	직무	20대 끝, 나의 공무원 시험 도전기?
8	심리	SELF CARE 챌린지
9	직무	플로리스트의 꽃피는 이야기
10	심리	나의 삶, 내가 좋아하는 것
11	직무	1시간으로 알아보는 개발자의 모든 것
12	직무	요즘 대세,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데이터분석
13	진로	보컬 트레이너의 프리랜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청년이 직접 들려주는 멘토링

2021.10.14(목)~10.16(토)

대상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청년

장소 온라인 화상 멘토링

시간 2021.10.05(화)~10.16(토) 10:00~19:00

주최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문의 |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담당자 송재현 ☎ 02-4731-2627 ✉ sc2903@yml.kr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청년은 청년이 직접 멘토가 되어 알려준다!

2021.09.08(수)~09.11(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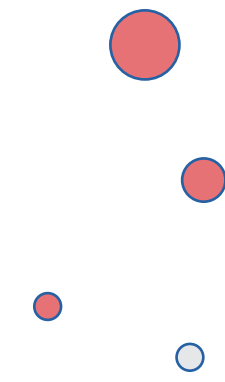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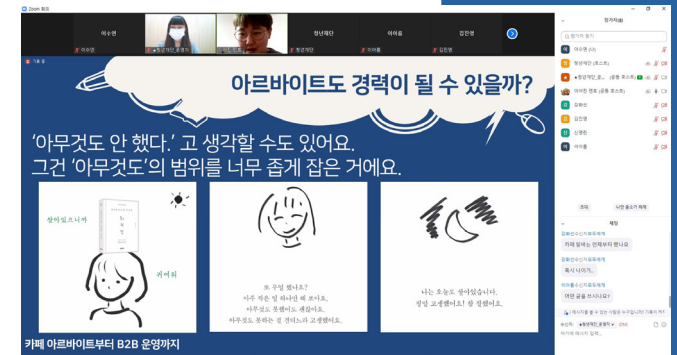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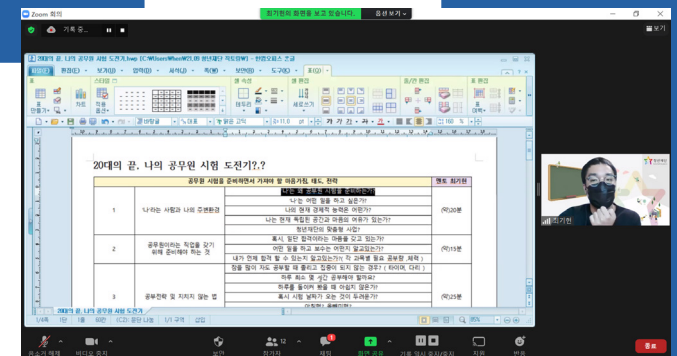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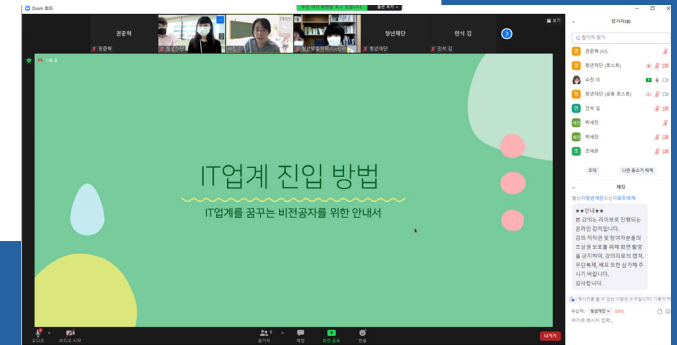
대상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청년

장소 온라인 화상 멘토링

시간 2021.08.30(월)~09.07(화) 10:00~19:00

주최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문의 |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담당자 송재현 ☎ 02-4731-2627 ✉ sc2903@yml.kr



<청년맞춤제작소>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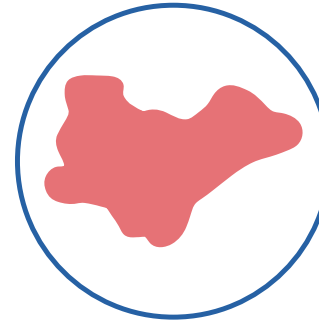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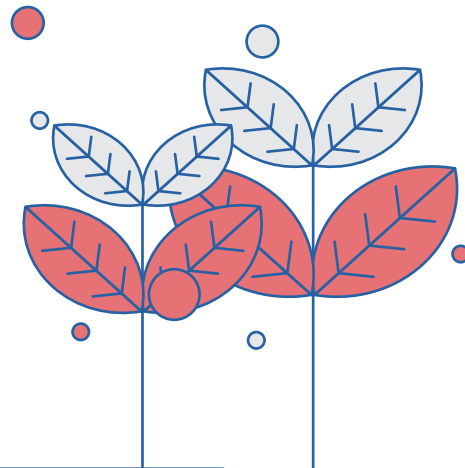
청년 개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청년맞춤제작소”라 명명

역할

삶의 기반이나 거점이 없는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사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1년간 밀착 지원하며 민관 경계 없는 종합적인 자원연계 제공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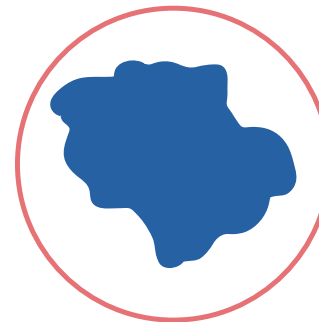
전국 10곳 운영(총 참여인원순 정렬)



서울특별시(성북)

위탁운영기관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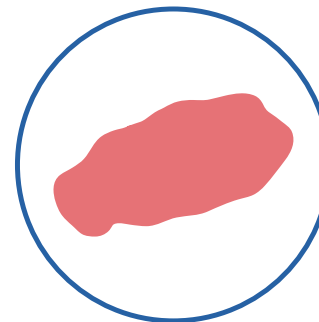
참여인원



서울특별시(관악)

위탁운영기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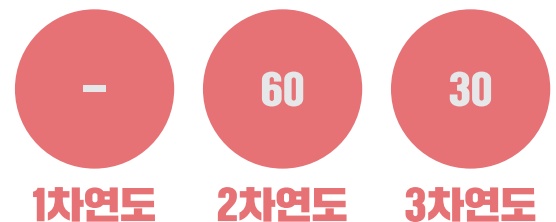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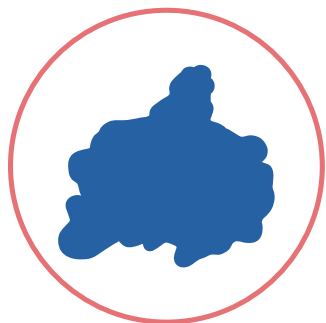


제주도

위탁운영기관 청년재단 직영

참여인원





위탁운영기관
일하는공동체

참여인원

2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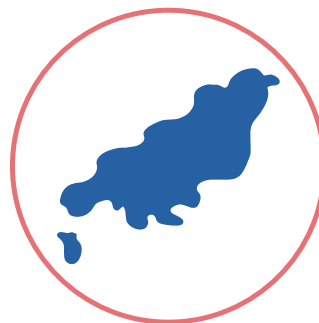
30

충청북도 청주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위탁운영기관
부산산학융합원

참여인원

2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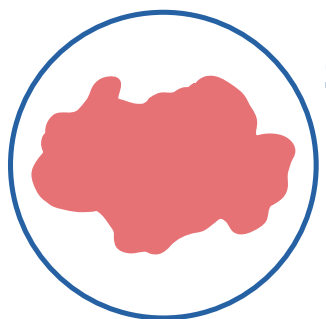
30

부산광역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위탁운영기관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지역고용정책연구원

참여인원

2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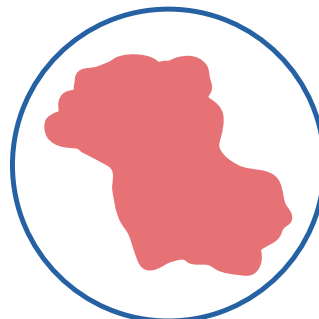
30

광주광역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위탁운영기관
함께걷는아이들

참여인원

2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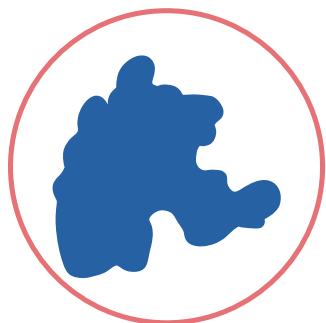
30

경기도 오산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위탁운영기관
상지대학교

참여인원

2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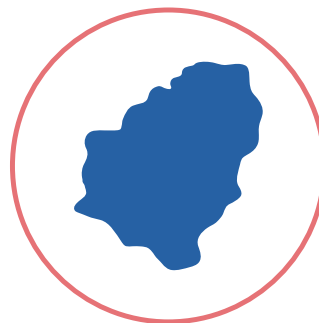
30

강원도 원주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위탁운영기관
성남이로운재단, 일하는학교

참여인원

2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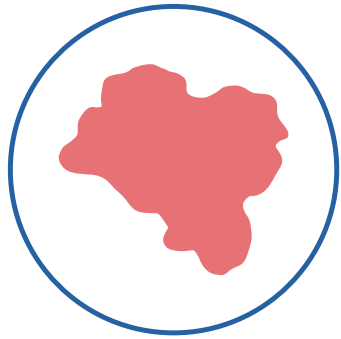
30

경기도 성남시

1차연도

2차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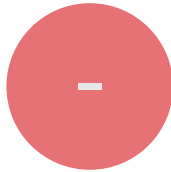
3차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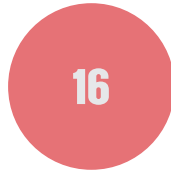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위탁운영기관
청년재단 직영

참여인원



1차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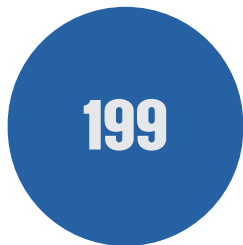


2차연도



3차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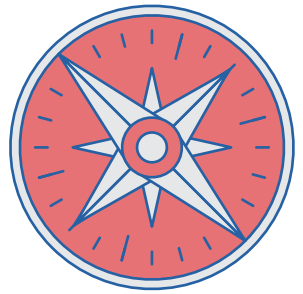
1차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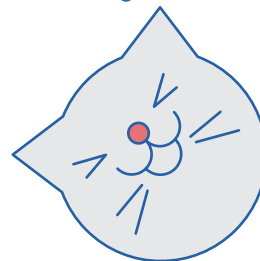
2차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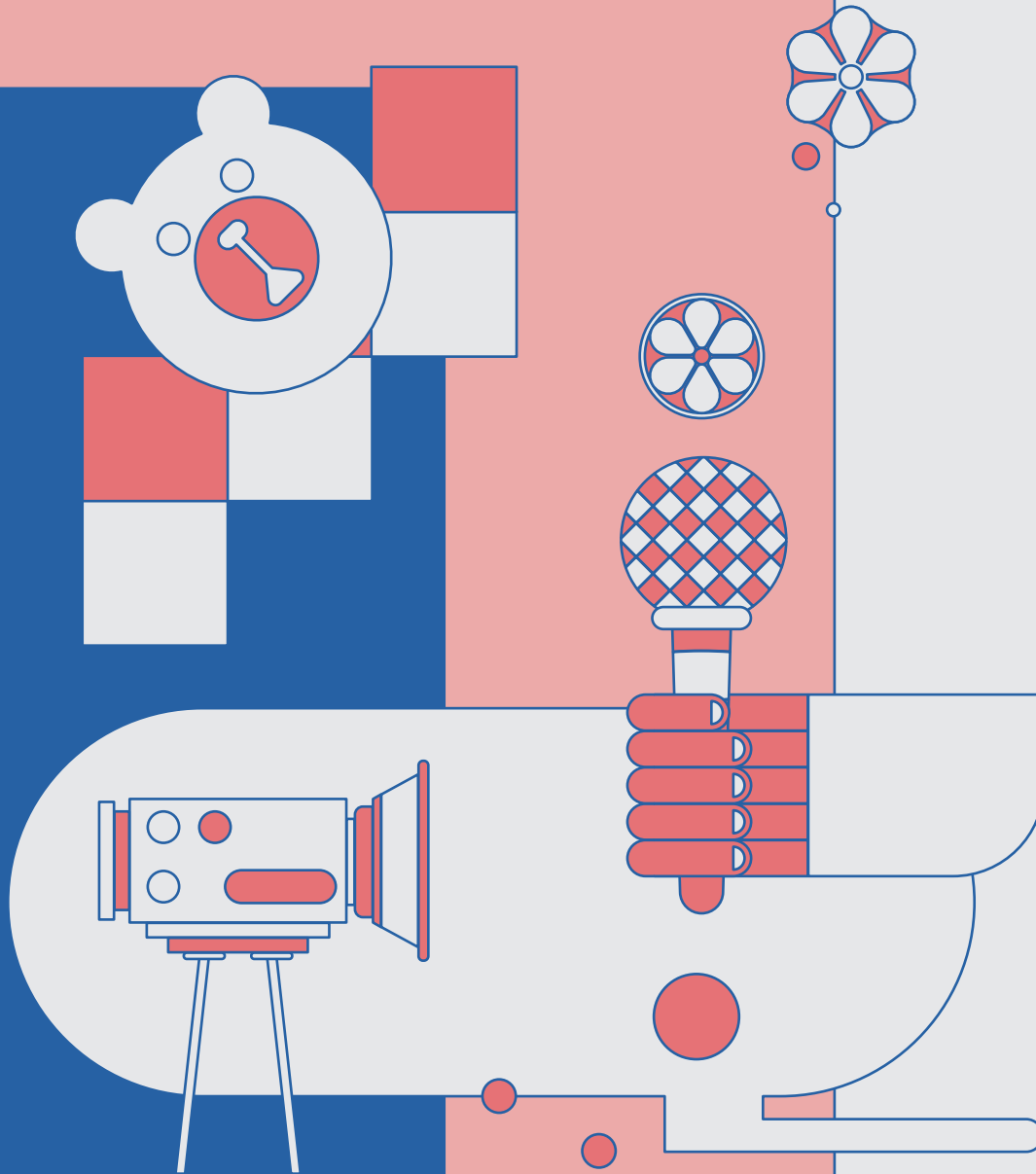
3차연도



합계 :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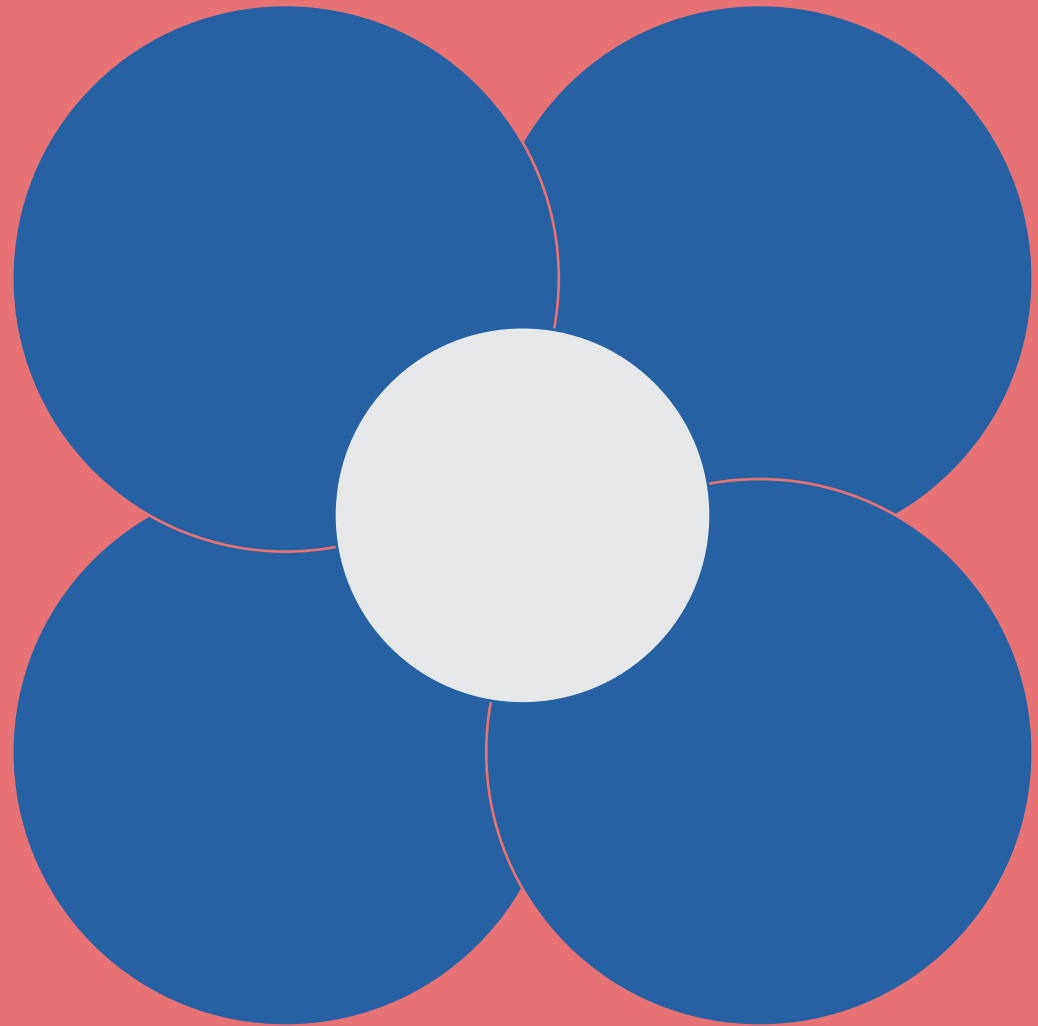


Ⅲ.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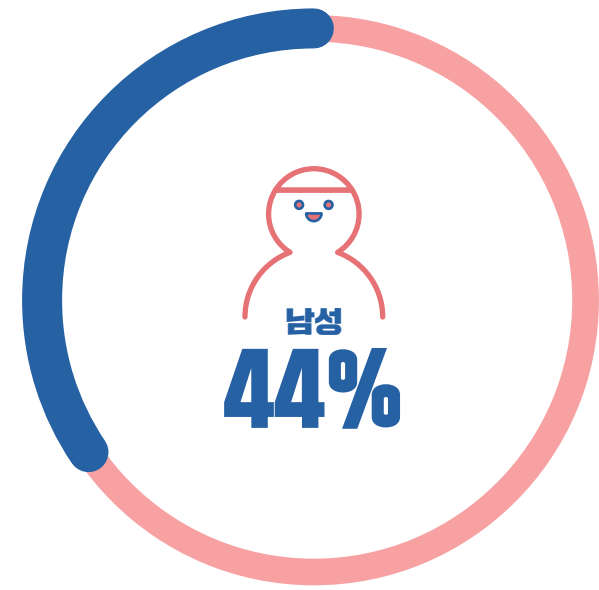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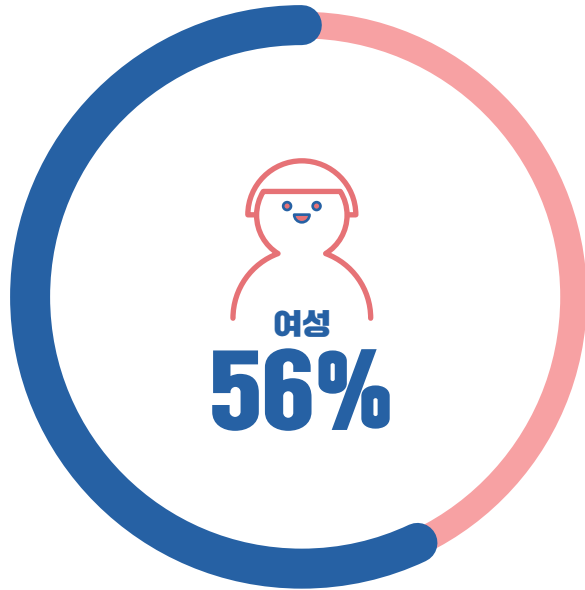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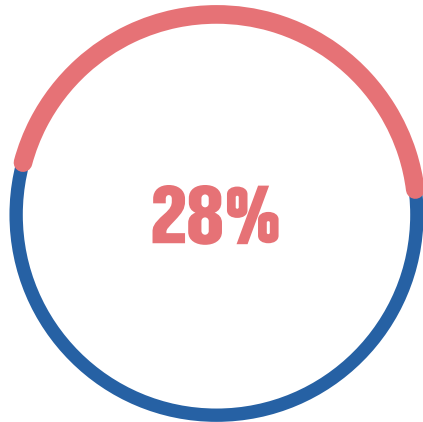
* 응답자 수: 736명(1차 연도 185명, 2차 연도 269명, 3차 연도 2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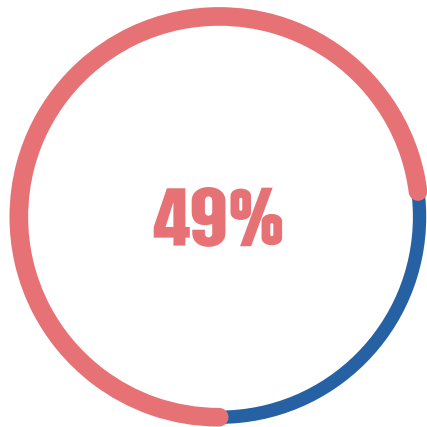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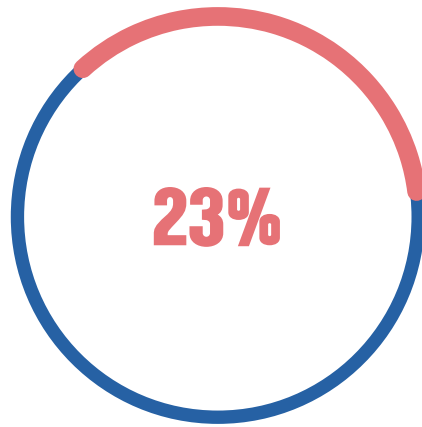
나이



20세 ~ 2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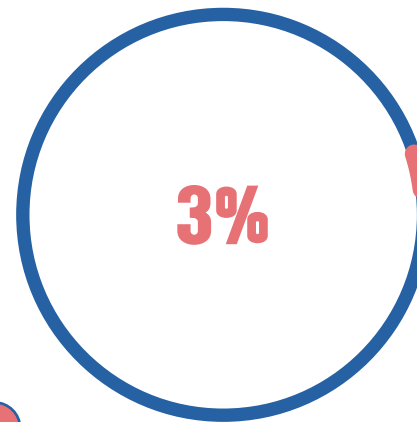


26세~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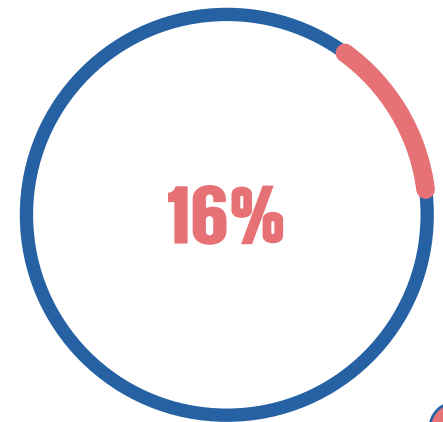


31세~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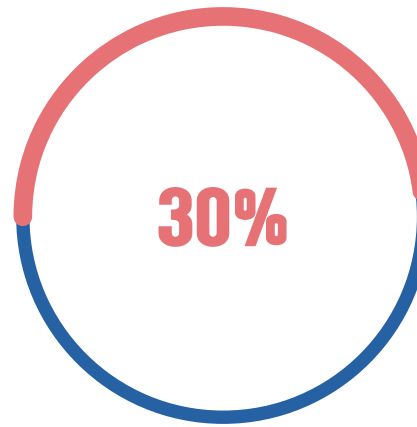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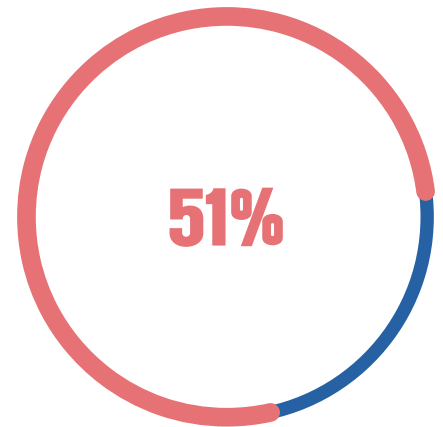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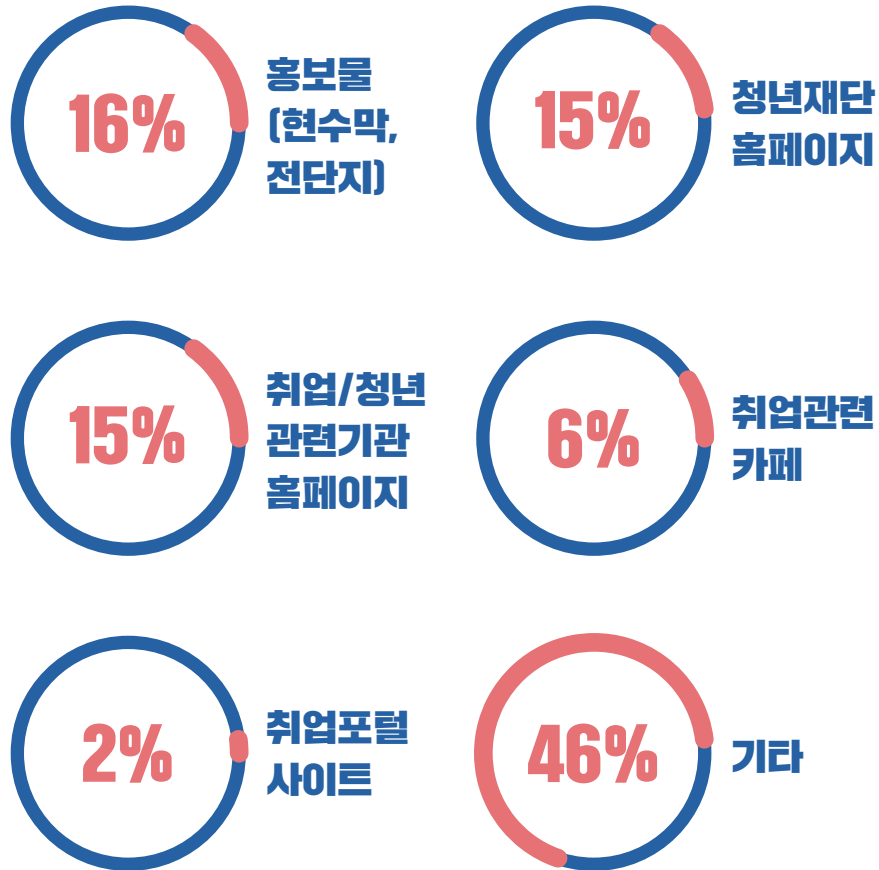


2, 3년제 대학
재학·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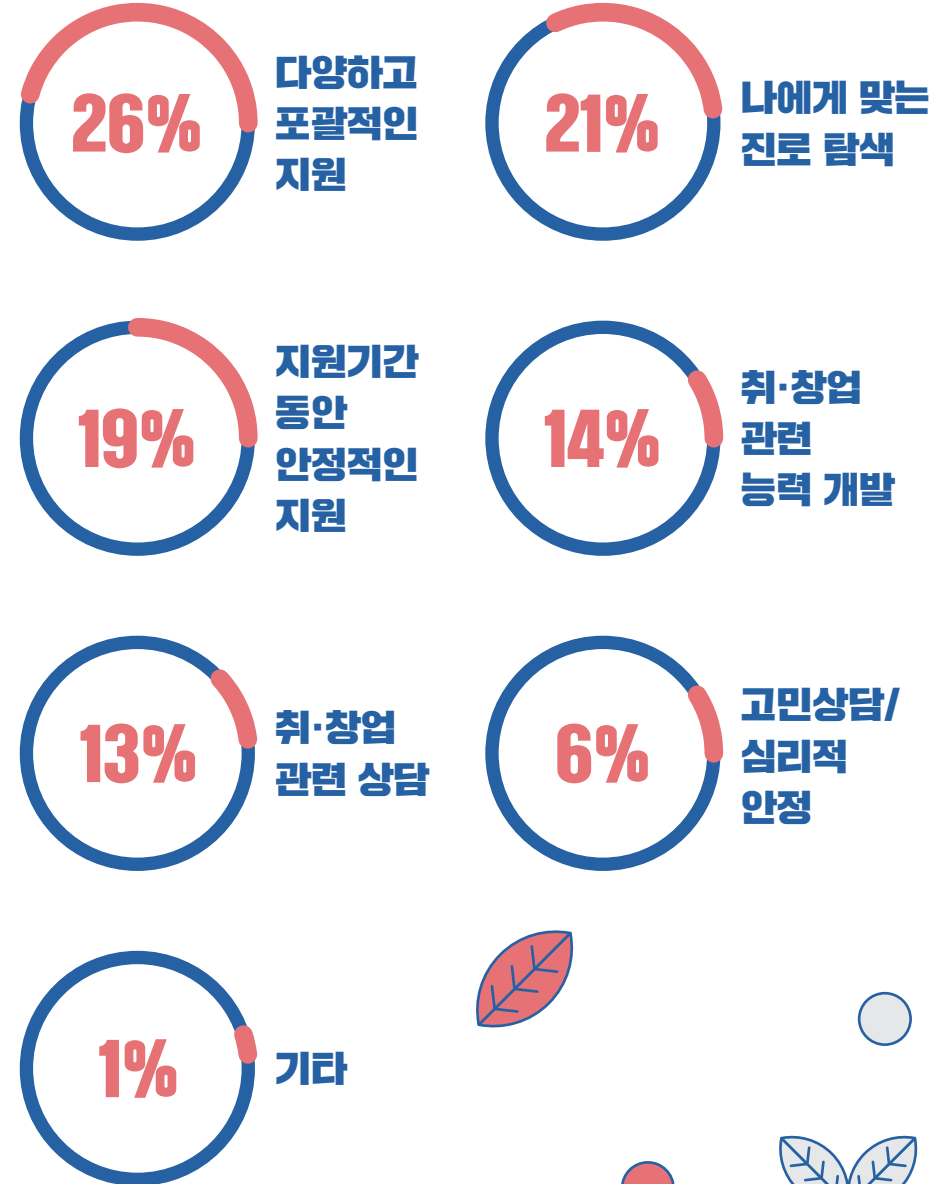


4년제 대학
재학·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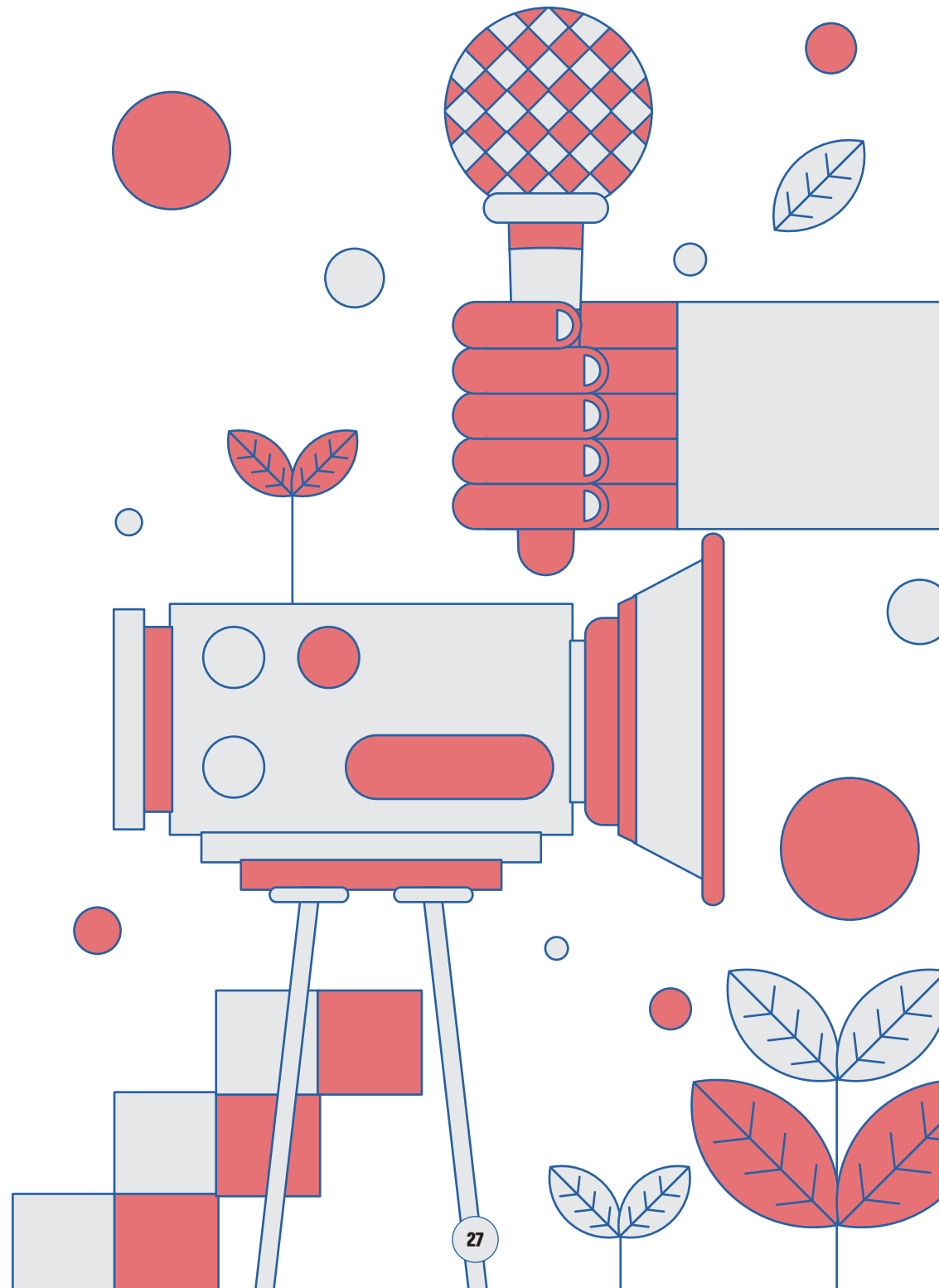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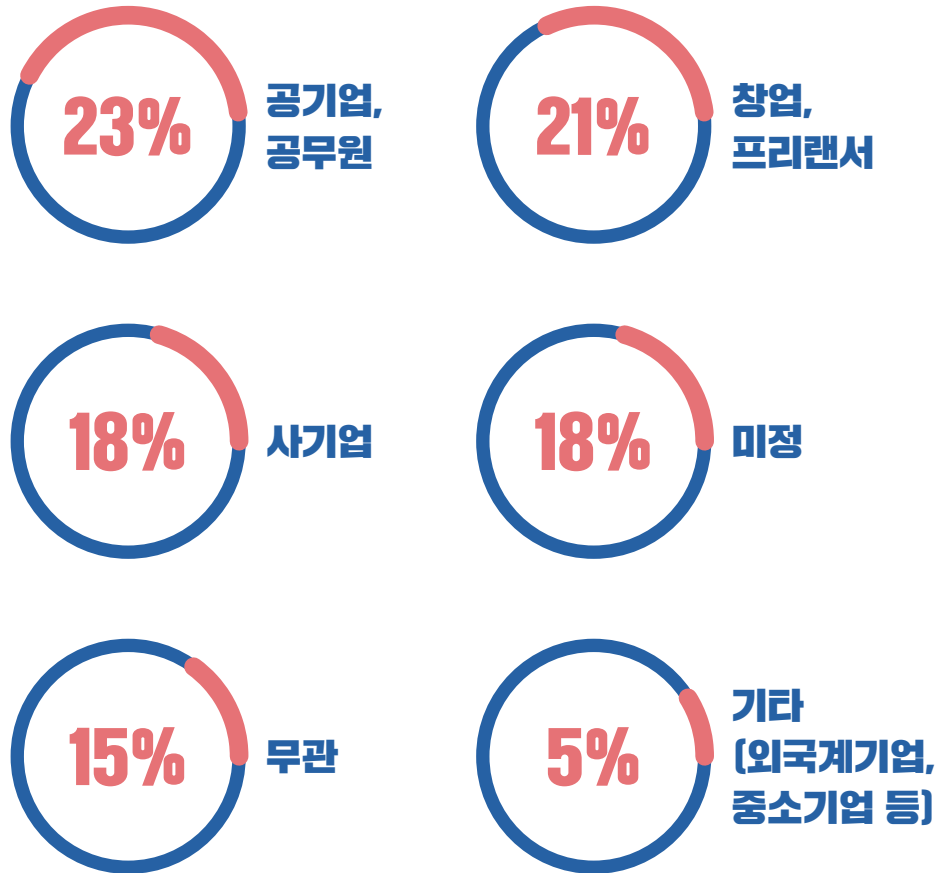
참여 경로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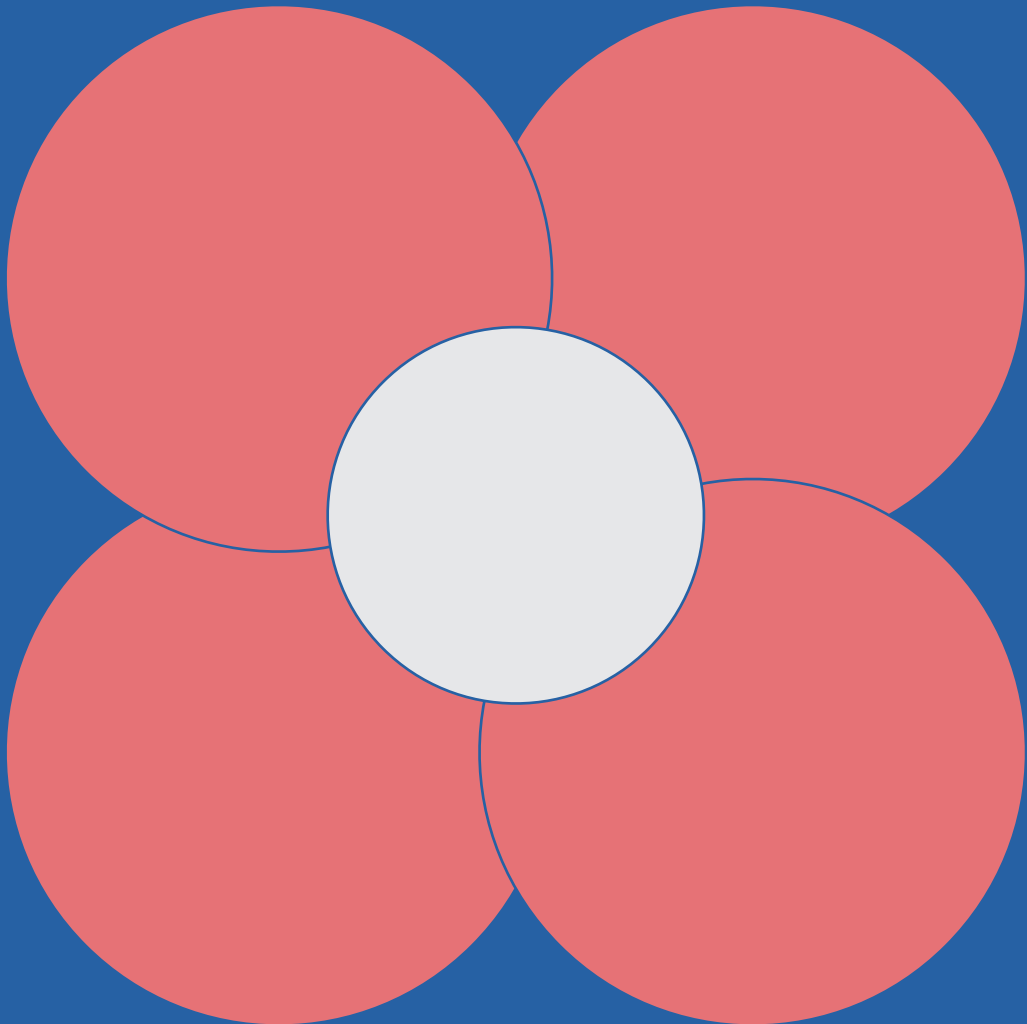


취업희망 기업형태



<사업 만족도>

* 5점 만점 / 응답자 수: 608명(1차 연도 185명, 2차 연도 269명, 3차 연도 154명)



운영 만족도



직원 친절도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유용성



정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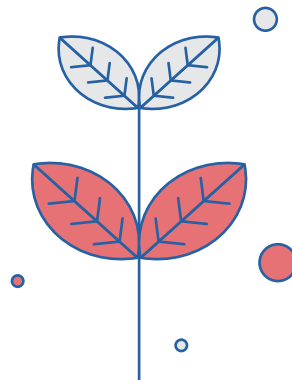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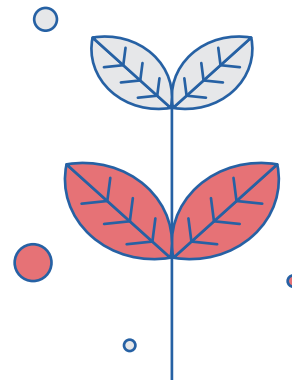
이용 공간



행정 절차



시설 접근성



프로그램별 만족도



식비 지원

종합검진 비용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애로사항
해소지원

취·창업
정보 지원

심리상담
지원



면접비용
지원

법률고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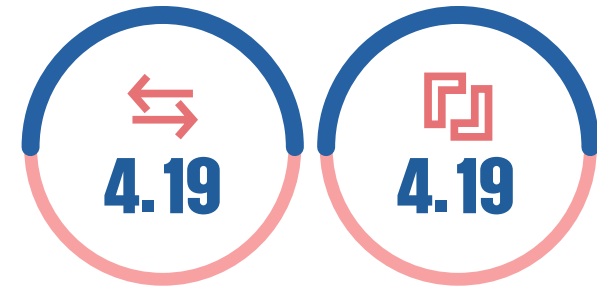
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상담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상담사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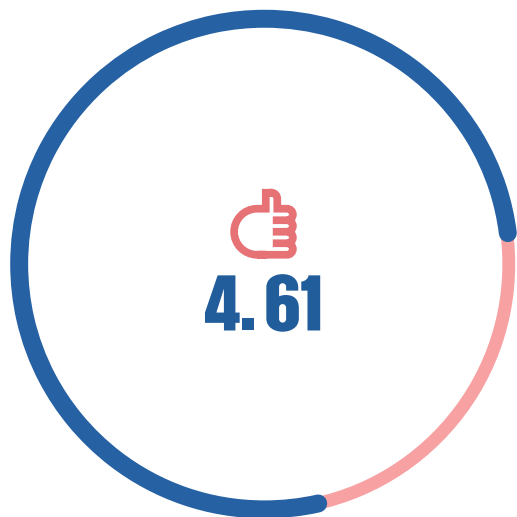
정기적 일정 안내



관련정보 제공

맞춤형 상담

사업관련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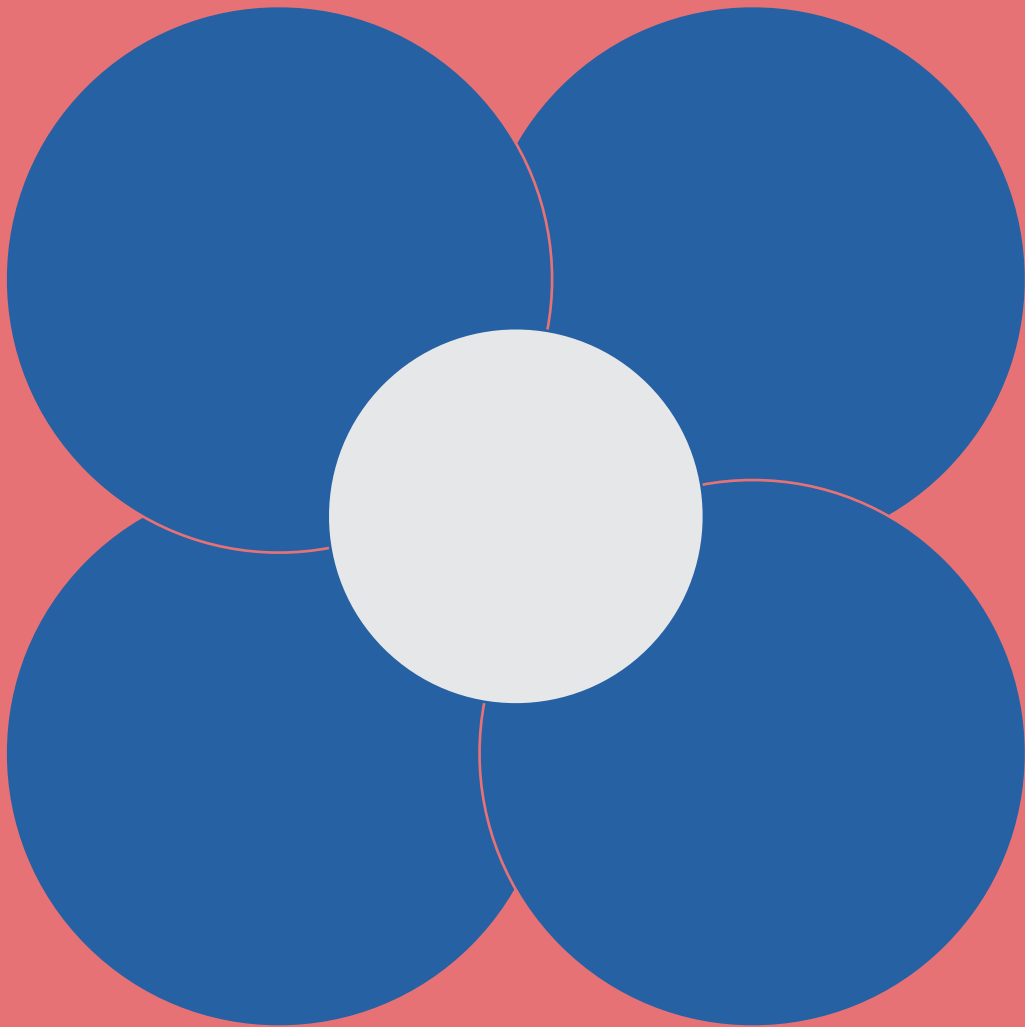


사업추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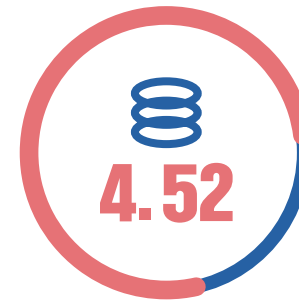
↕↗
4.53

지속참여 의사

<사업참여 후 도움정도>



항목별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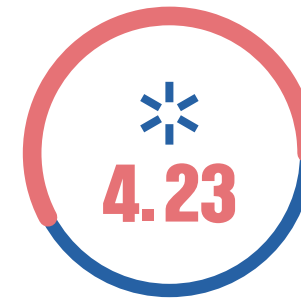
경제적 도움



취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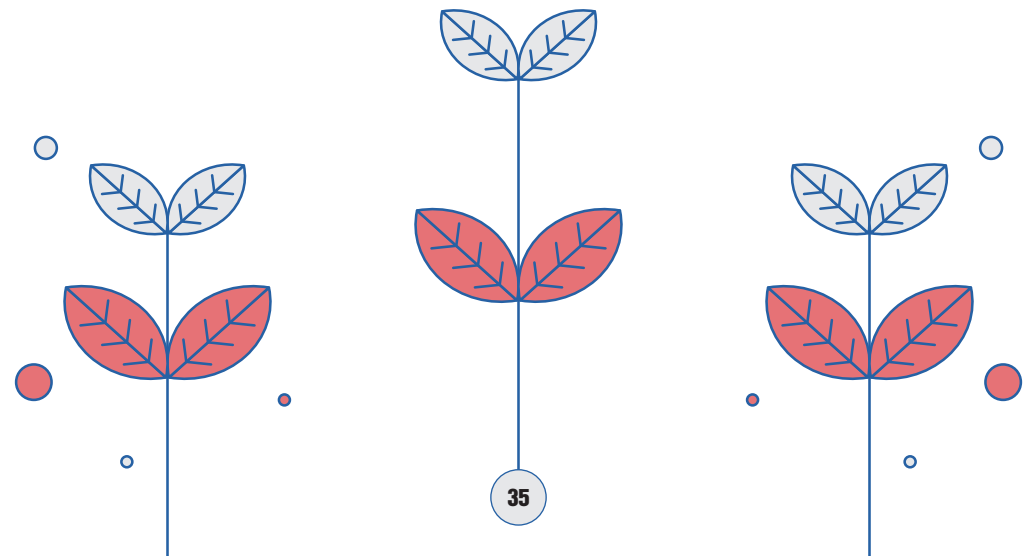
심리적 안정



취업 자신감



진로 선택



삶의 질 관련 도움정도



자신감 향상

장점 인식

즐거움 인식



행복감 증진

지인 관계 개선

가족 관계 개선

취업준비 관련 도움정도



자격증 취득 준비

직업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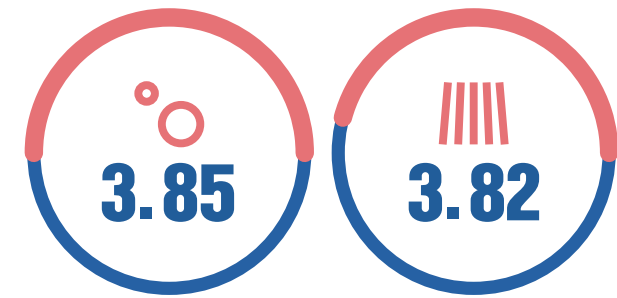
직업적성 검사



구직 활동

구직 등록

취업 정보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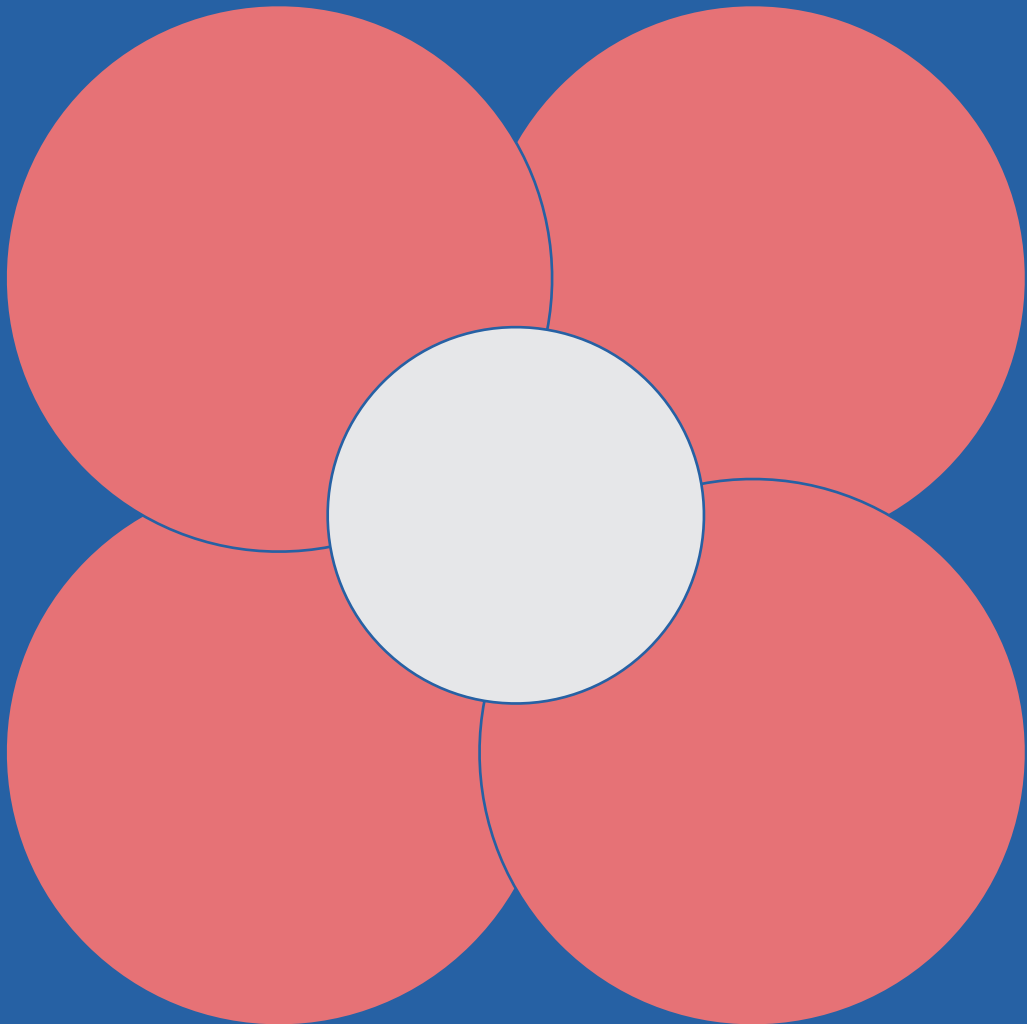


취업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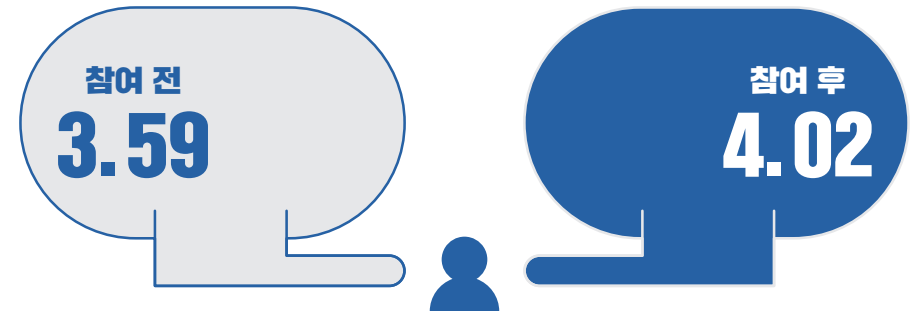
면접교육 참여

<사업 전과 후, 이렇게 바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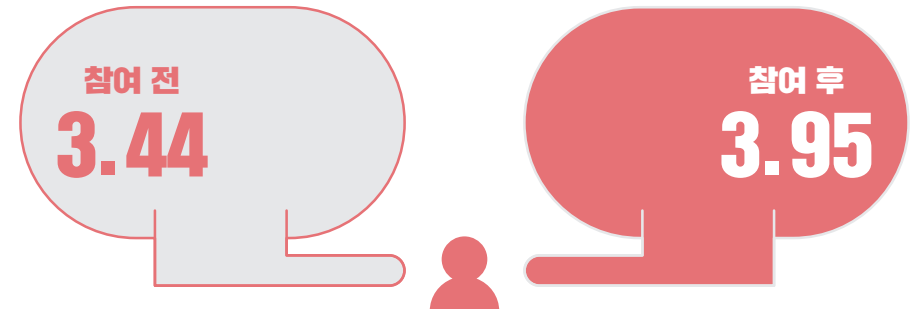
* 5점 만점 / 응답자 수 : 3차 연도 참여 전 282명, 참여 후 1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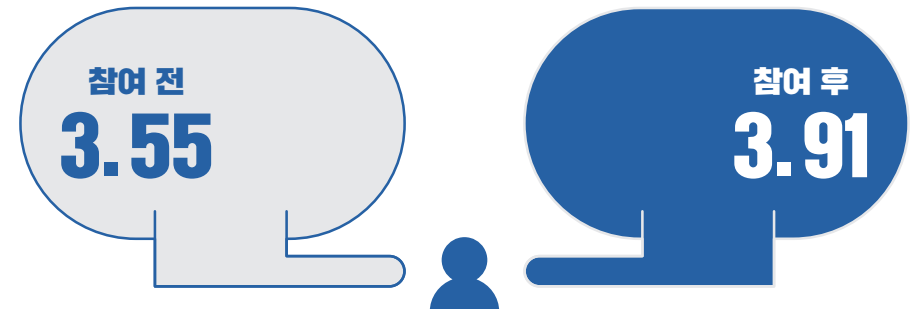
삶의 질 관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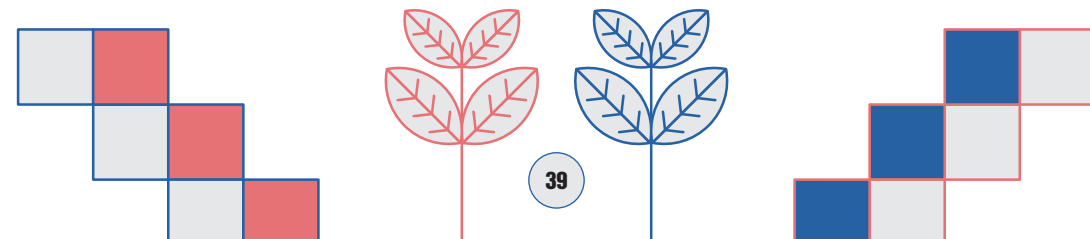
자신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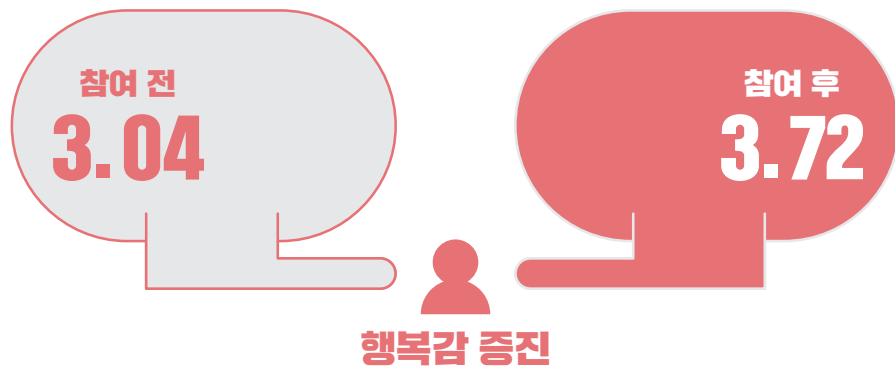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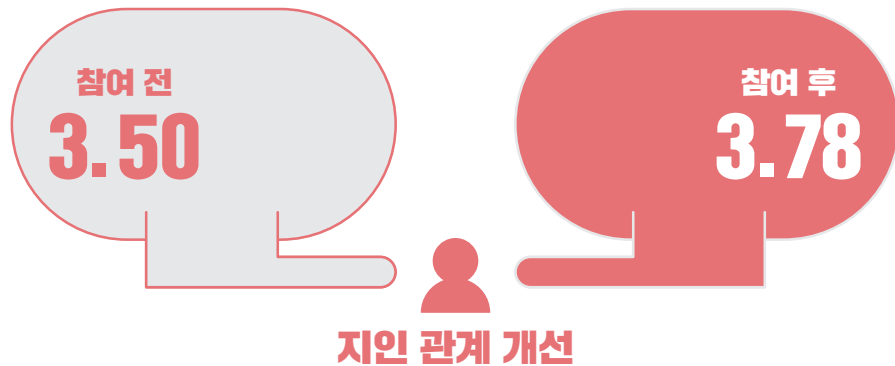


장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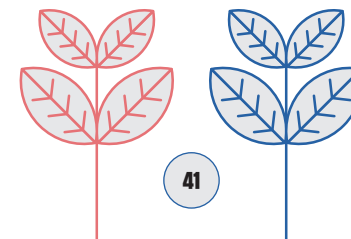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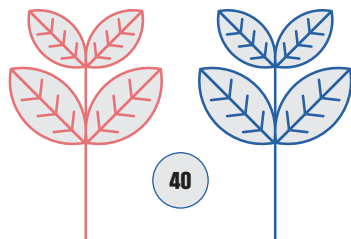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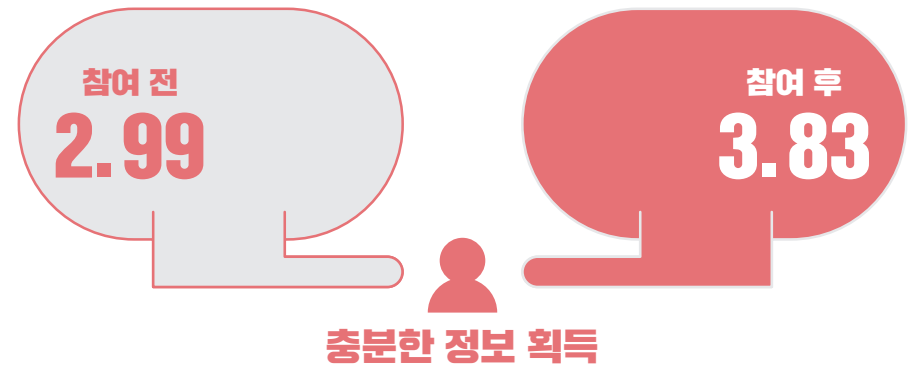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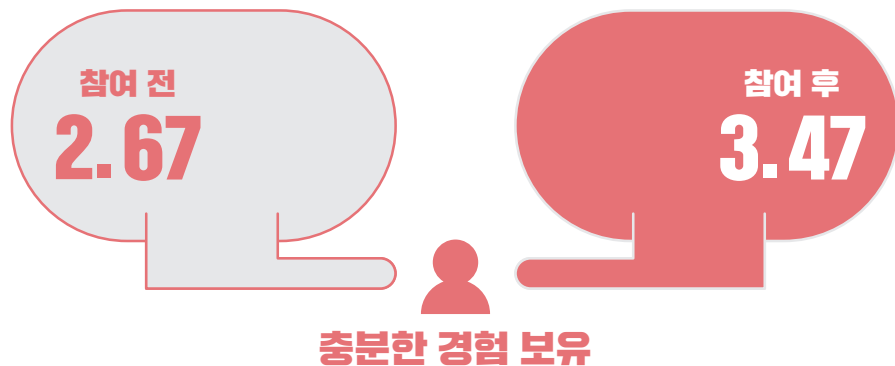
즐거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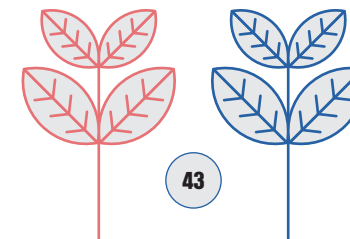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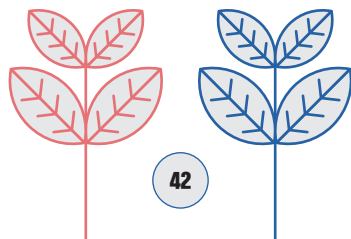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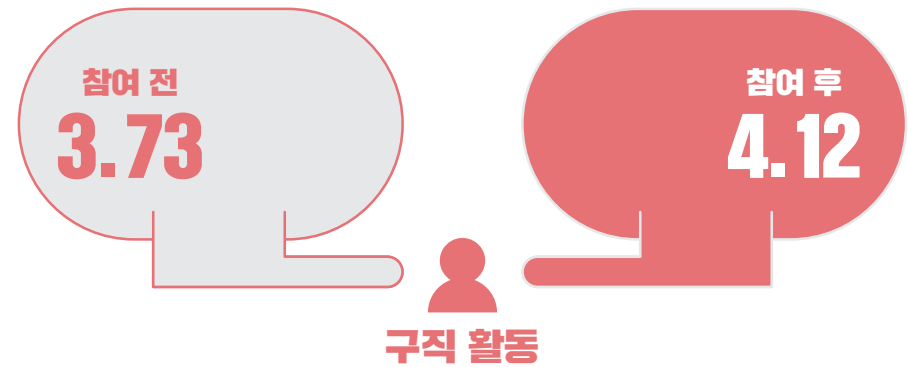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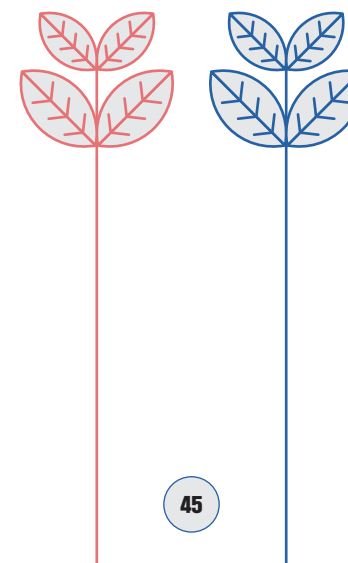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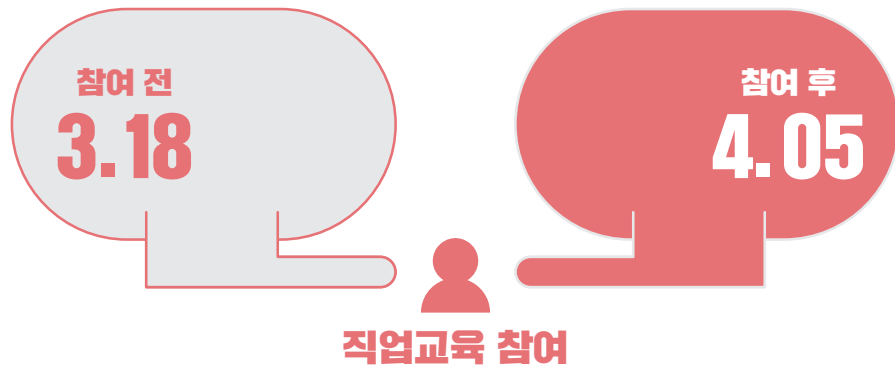
진로결정 관련 만족도





취업준비 관련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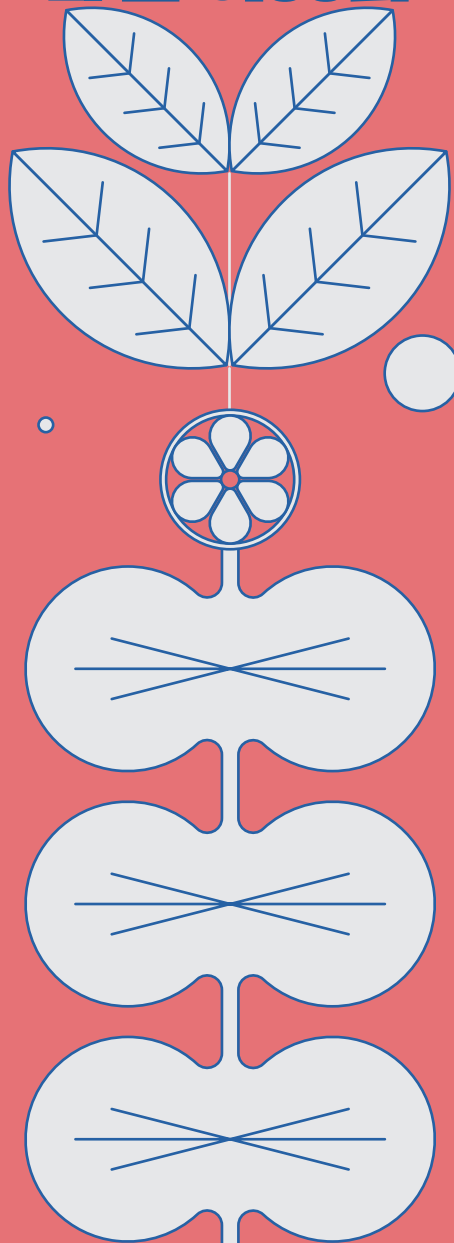


<맞춤형 지원모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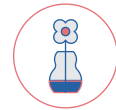
청년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다 다르게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7살 이00님
- 원하는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33살 유△△님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박□□님
- 배우가 되고 싶은 25살 문☆☆님
- 파트타임 일자리도 절실한 23살 최★★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7살 이00님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불안,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요. 올해 초에는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받게 되시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와 우울증 치료, 어머니 간병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리상담

**우울증 완화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
6회**



교육훈련

**우울증으로 인해 포기했던 프로그래밍 분야로의 취업목표
설정 후 관련 국비지원 교육과정 자부담비 및 교통비 지원
4개월**



멘토링

**취업희망직무 현직자와의 소그룹 멘토링 제공
4회**



취업지원

**면접정장 대여비 및 증명사진 촬영비 지원
1회**



식비

**식비 월 20만원
5회**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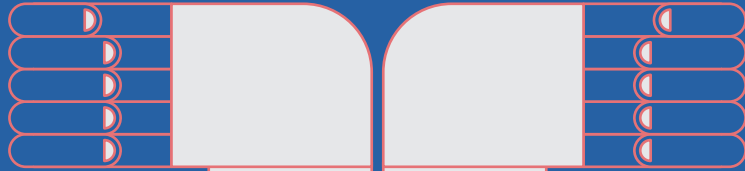
**종합건강검진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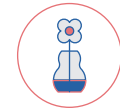
애로사항 해소지원

**어머니의 암 투병 및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상황에 대해 애로사항 해소 긴급지원금 지급
1회**

원하는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33살 유△△님



이혼 후 ADHD 진단을 받았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원하는 분야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6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었고,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 중인 상태라 이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심리상담

**ADHD 완화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
1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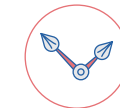
교육훈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비 지원
2개월**



식비

**식비 월 20만원
6회**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1회**



애로사항 해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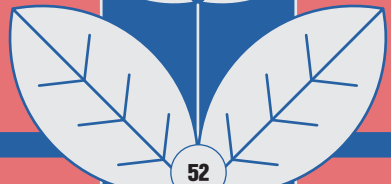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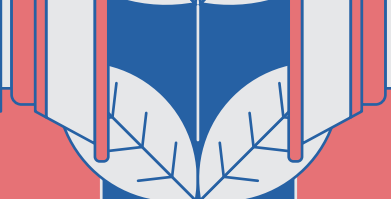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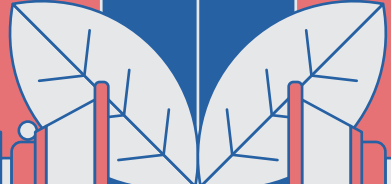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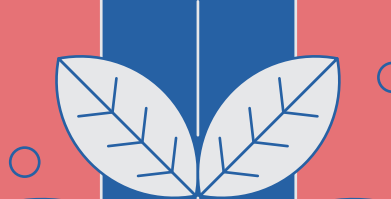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임금 체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하여 애로사항 해소 긴급지원금 지급
1회**



커뮤니티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4개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박□□님



비정규근로 생산직을 그만두고 티소몰리에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어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덕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단기 시간강사로 일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무를 하며 생긴 허리 디스크 치료비 및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티소몰리에로서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여유가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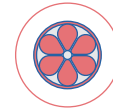
교육훈련

티소몰리에 자격증 취득 및 e-커머스 과정 교육비 지원
6개월



커뮤니티

강사로서의 역량강화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지역청년지원센터 모임지원 프로그램 연계
3개월



창업지원

지역창업지원센터 연계 1:1 컨설팅 제공
3개월



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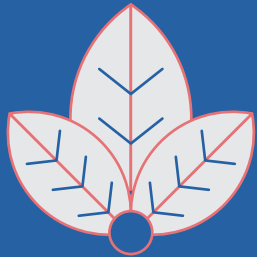
식비 월 20만원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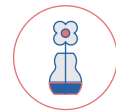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1회

배우가 되고 싶은 25살 문☆☆님



저는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입니다. 과거 가정폭력 피해경험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어머니는 이혼 후 새로운 동거인과 살고 계신데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시도를 하셔서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쉽지 않지만 배우의 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심리상담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밀착상담 지원

6개월



교육훈련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 컨설팅 및 연기학원 교육비 지원

3개월



애로사항 해소지원

빠른 일상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상담지원센터 PTSD 치료비 지원

3개월



식비

식비 월 20만원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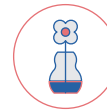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1회

파트타임 일자리도 절실한 23살 최☆☆님

어릴 때부터 원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 쉼터와 거리에서 생활하다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사회에서 파트타임 일자리조차 갖기 힘들어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심리상담

우울감 완화 및 사회생활 의지 회복을 위한 상담

8회



교육훈련

내일배움카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자부담비 지원

4개월



애로사항 해소지원

공과금 납부, 생활필수품 구입으로 인한 신용카드 연체료,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지된 휴대전화 연체료 지원

1회



취업지원

지역 사업장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2개월



식비

식비 월 20만원

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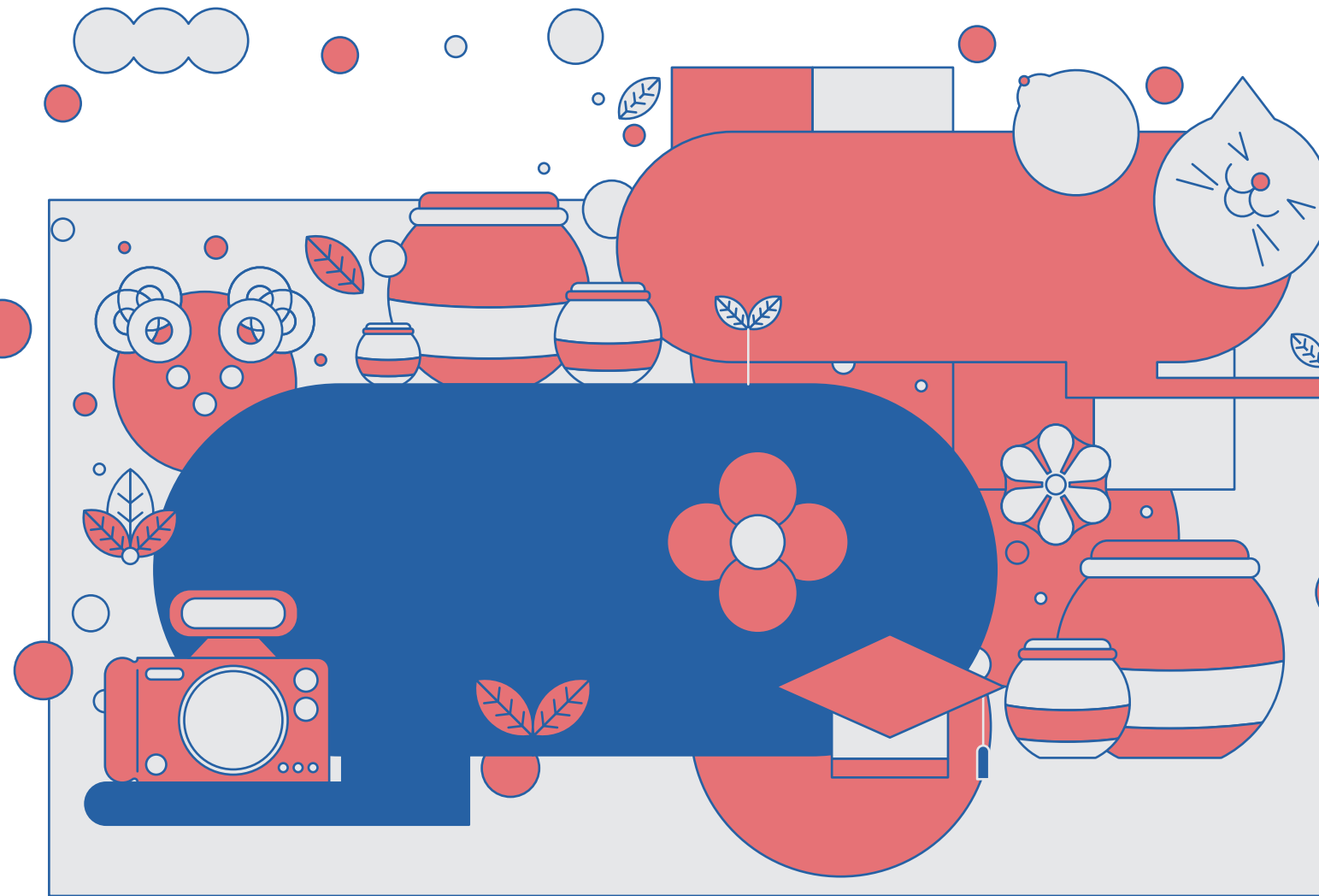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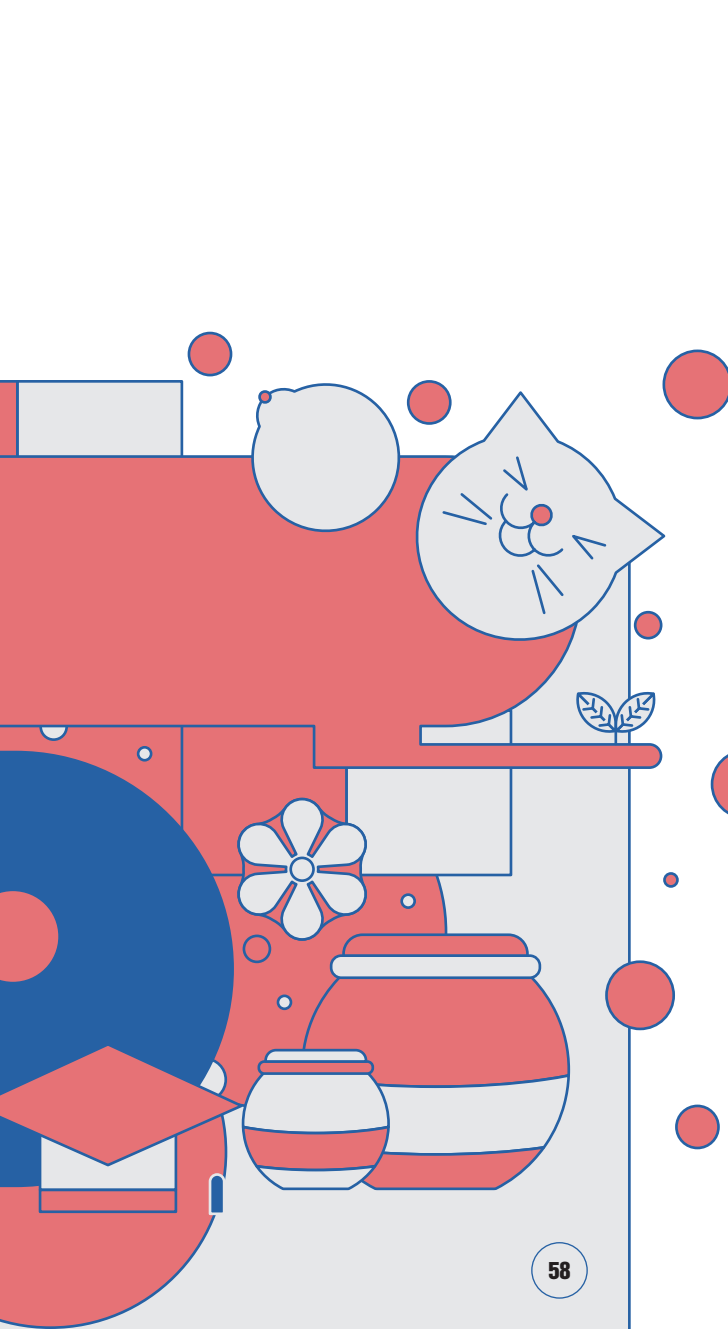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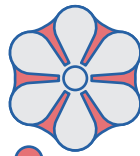
종합건강검진

1회

Ⅳ. 우리의 이야기



평범하다는 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다.



조용화(청년재단 맞춤사업팀장)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좋은 삶든 간에 어떤 선택을 마주해야 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에는 정답이 없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정답을 강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 등 꼭 특정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데도 사회 통념, 분위기에 의해 정답을 쫓아가도록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수에 맞춰 학교와 전공, 나중에는 진로와 일자리까지 선택해야 했으며 그 안에서 또 최선의 정답을 계속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한 청년세대,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진로나 적성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고찰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정답지를 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답지 속의 좋은 일자리와 직업은 한정적인데 많은 청년들이 공장의 공산품을 찍어 내듯 동일한 스펙, 자격증 등을 준비하면서 정답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확히는 정답지 속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초기 청년지원 정책들은 획일적인 틀로 또다시 청년들에게 정답을 강요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청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수많은 청년 정책 속에서도 정작 청년 당사자들은 본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사업을 기획하는 청년재단의 직원이 아닌, 또 한 명의 청년으로 ‘내가 자립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이었을까?’ 과거를 되뇌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사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에 홀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던져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기댈 가족조차 없던 그때의 느낌은 ‘**마치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한 마리 연약한 물고기**’,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하여 일해야 했고, 미래를 고민할 여유도, 물어볼 곳도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16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만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일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또는 평범한 사람의 정의는 무엇일까?’ 개개인은 모두 자신만의 살아온 환경이 있고 생각, 습관, 지식, 관심사 등이 다르며 특별합니다. **특별함이야말로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며, 평범하다는 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기획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개인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 포괄적인 영역에 필요한 지원들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전담 상담사가 개인 밀착형으로 지속적인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금의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3년간 800명이 넘는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하였고,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여기서 더 보완하고 발전하여 앞으로는 “청년 다다름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지에도 눈치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꿈꾸고 노력하는 청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들이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원을 받던 청년에서 도움을 주는 청년으로

최현호(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2기 참여자)

처음 시작은 2020년 초 겨울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반년 정도 됐고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막하고 불안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저곳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받았고, 그 끝에 청년맞춤제작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경의 제작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적어진 기회는 더 소중했습니다. 성남제작소에서 성향·기질 검사와 진로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작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타인을 돕는 데에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는 성향이라는 것과 미래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가치 있는 기술을 배워서 타인을 돕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진로를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교육비 외에도 식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었습니다. 이때 청년재단의 월 20만 원의 식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독립하여 낯선 타지에서 6개월간 기술을 배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다. 배움의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제작자님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끝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원 내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던 성취 경험도 공유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면접 컨설팅을 받으며, 면접 울렁증도 조금씩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과정에 함께 공감하고 조언해주신 임경의 제작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저 또한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취업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하는 학교”라는 곳을 소개받고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월급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기쁩니다. 지난 가을, 직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했던 경험도 뜻깊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을 한 이후까지의 작은 경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존재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취업 지원을 받던 청년에서 도움을 주는 청년으로 변화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인을 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프로그램들이 확장되어 더 많은 제작소와 제작자님,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이며,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직토링 같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도움을 받았던 청년이 다시 도움을 주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To. 청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는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저 역시 그런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저처럼 주변에 도움받기 마땅치 않은 분들은 청년재단의 문을 두드려 봅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아 무력무력 성장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 충분히 일어설 수 있게 됐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아직 일어설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요.

안희정(청년맞춤제작소in원주 제작자)

2019년 여름, 내 맘은 여전히 청년이지만 어느새 ‘나 때는 말이야~’를 소심하게 읊조리던 30대 끝자락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만났습니다. **15년 가까이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며 청소년기에서의 미해결 과제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고 늘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취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동시에, 그것도 무려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다니, 너무나 설레는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꼭 해야겠구나 결심하게 되었고, 상지대학교에 동지를 틀고 2019년 8월 ‘상지대 청년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본격적으로 ‘청년맞춤제작소in원주’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해 연도에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못한 사각지대 청년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개소식 이후 거의 매일을 복지시설, 주민센터, 상담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발품을 팔며 홍보물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결혼 전 옷이 맞을 정도로 살이 빠지는 강제 다이어트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았지만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1차 연도였기에, 2019년은 32명의 신청자 중 24명의 청년이 참여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과의 첫 대면이자 관계 형성의 시작인 ‘사전인터뷰’는 이 사업의 핵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러 온 청년들은 대부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제작자가 간단히 사업 소개를 하고 “신청해줘서 고마워요. 신청서에 쓰셨던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요.**”라고 공감하면 대부분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전인터뷰에서 맘에 문을 연 청년들은 이후의 과정에서도 제작자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곁에서 믿음을 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던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상지대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캠퍼스 안까지 걸어 올라오는 길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면서도 막상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활기 넘치는 캠퍼스를 걷다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청년들에게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캠퍼스의 활기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2019년처럼 캠퍼스를 거니는 것만으로 청년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고대해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90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사전인터뷰를 했던 청년들까지 더하면 13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매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겠고,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점점 더 녹록지 않다는 얘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던 청년들의 삶에 이 사업이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청년들을 더욱 아프게만 할 뿐, 현실의 공허함을 채워내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몫이라는 것을 참여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던 젊은 날의 방향과 혼란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지만, 각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났던 제작자분들 모두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청년들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년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에 발을 내딛고 자신의 삶을 뿌리내리기 시작한 수많은 청년들도 각자의 지역과 조직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의 싹을 틔우리라 믿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자 직영 후원 결과물



안녕하세요, PD의 꿈을 갖고 있는 페달입니다.
저는 오랜 취업준비 기간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웠던 마음을 청년제작소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나누고 싶어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전공을 뒤로하고
단기 근무나 아르바이트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취업 준비에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방법을 찾으려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역시 참여하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감사했지만, 특히
길고 걸었던 구직기간 동안 떨어진 자신감을 위해
심리 상담지원을 받은 것과 도움이 지치지 않도록
꼭꼭 연락하고 케어해주신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다시
이 길로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나마도 취업을 해보겠다고 원서를 썼지만
결국이 모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없고, 사회적 지원들도 한계가 있고..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PD의 길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사그라져 갔습니다.



혹여나 다른 일이 적절할까 하여
진로 컨설팅도 받아보았지만,
결국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영상 분야라는 것만
더 느끼게 되었고, 솔직히 포기하기도 싫었어요.



역시 이곳이
내 길인가 보다

취업 준비, 정말 쉽지 않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거고
청년취업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도 한계가 있어
가진 꿈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한계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리는 거 같습니다.
마음 어려우신 분들은 툭툭 털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구현하시길 바라요!



청년 열에 청년대원이 함께합니다! 청년대원은 청년 여러분의 항상 응원합니다!

어느새 봄이 왔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진웅(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2기 참여자)

처음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알게 된 건 2019년 연말,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어떤 식당에서 모임이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함께 먹은 음식의 비용을 먼저 계산 후 잔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정산하려는 그 순간이었죠.

“저는 계산 따로 할게요.”

본인의 카드로 따로 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문득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왜요?” “아, 식비 지원 카드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라는 글자가 쓰인 하얀색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청년재단?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관심을 보이는 제게 친절히 설명해주셨던 그분 덕분에 수월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선정이라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식비 지원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조금씩 아껴 쓰느라 외식도 자연스레 자제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자 정말 숨이 트인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친동생과 같이 지원을 받게 되자 서로의 일일 사용한도를 몰아주는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조금 특별한 날도 기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할 날짜를 서로 정하고 알려주는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공통된 대화 주제가 생겨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지원이나 심리상담 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힘들었던 2020년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건 풍족했던 외식 생활 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식비 지원으로 든든히 먹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역시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퇴사 이후

공백과 구직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렵게 합격한 회사를 일주일 만에 그만두면서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고 몇 달 동안 취업과 관련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부적응자라고 평가하는 시선이 두려웠고, 자존감도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죠.** 다들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괴로웠고, 특히 제가 했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 힘듦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봄이 오기 전, 겨울 끝자락의 어느 날 난방으로 따뜻해진 공기가 불현듯 답답하게 느껴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다 보니 아직은 춥게 느껴져 옷을 꺼입었고, 막상 옷을 입고 보니 옷을 입은 노력이 아까워서 밖이라도 나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며 따스한 햇볕 아래서 걷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환기되는 것 같더니 지난 몇 달간 사라져 버렸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욕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다시 눕는 대신 얼른 저만의 아주 작은 계획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는 의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상에 불과할 사소한 행동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낮 12시 전에 일어나기, 하루에 한 번 샤워하기, 옷 입고 밖으로 나가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은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했던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고, 결국 다시 취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나는 이제 이런 생활을 끝내겠어.’ 또는 ‘올해는 반드시 취업을 하겠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부담감에 못 이겨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들을 통해 의지를 끌어 모아 더 큰 행동들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직토틱 프로그램에서 ‘셀프케어’라는 제목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뿌듯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쯤, 제작자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웅 씨~ 어느새 봄이 왔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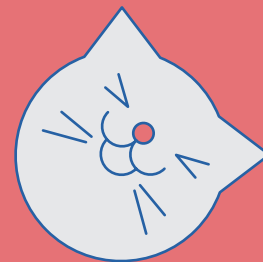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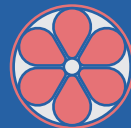
‘저도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기특하면서도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분명 흔쾌히 도움을 주셨을 텐데. 제작자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가 기억납니다. 절차상 진행하는 형식적인 상담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제가 겪고 있던 심리적인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는, 그런 멘토였습니다. 첫 상담 이후로 믿을 수 있는 내 편이라고 느끼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인식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 제게 있어서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보다 값진 지원이자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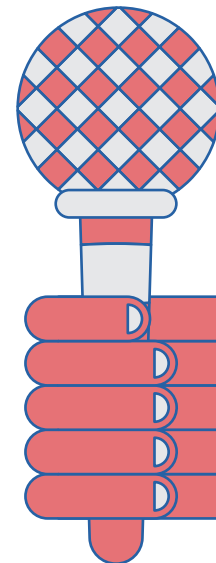
“저는 계산 따로 할게요.”

평소라면 흘려들었을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호기심을 보였던 과거의 저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늘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하셨던 제작자님, 그리고 청년재단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던데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청년 분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을 믿으세요.

ps. We all lie가 들리신다면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자 정말 숨이 트인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제게 있어서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보다 값진 지원이자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윤형주(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전 담당자)

#1.

‘구직활동 애로사항이란? 청년들의 생계, 가족부양,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한다.’

6년 전, 이 말을 만들고 정의 내릴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한편으로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더 적합한 단어를 차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초가을, 미비한 신청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그는 가정 사정이 어려워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을 재단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까에 대한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청년 개인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저 자신과 직면하게 되어 부끄러웠고, 청년의 상황을 듣고 함께 울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를 계기로 저는 사업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청년들의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저에게 있어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공간 선정, 부동산 계약, 인테리어, 채용 등을 처음 해보았기에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10개 제작소 덕분에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에도 방문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사업이었기에 개인적으로 더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전국에 10개의 제작소가 있어서 각지로 출장을 다니며 이동시간에도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멀미를 참아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과의 협약서와 현수막 시안을 준비하던 때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었지만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4.

6년 전만 해도 사회는 청년을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지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재단에서 교육사업, 복지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오면서 결국엔 “청년 개인의 삶”,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적이 수월하게 나오는 사업이나, 행정이 편리한 사업보다는 청년에게 좋고,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해볼 수 있는 곳이었기에 청년재단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청년재단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민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들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주신 제작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수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2기 참여자)

저는 취준생 시절, 청년재단 블로그를 구독하던 중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비 지원, 심리 상담 지원, 건강검진비용 지원, 심지어 법률 고민 지원까지. 지원 항목을 보고 '와, 이거 대기업 복지 수준인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바로 PC방과 무인발급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인쇄하고,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며 정성껏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몇 주 후, 제작자님이 전화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취준생일 때부터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경제적 변화 : 식비 지원>

경제적으로 변동이 심해 힘들었던 구직활동 시기부터 취업 직후까지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지원은 '식비 지원'이었습니다. 매월 첫날 20만 포인트씩 충전되는 식비 지원카드 덕분에 식비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식비 지원카드는 하루에 12000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했는데, 하루에 점심 한 끼, 혹은 아침 커피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신입사원 월급을 받는 저로서는 지원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지인들과 카페에 갈 때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을 받는다며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식비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재정 상황에 여유가 생기자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적 변화 : 애로사항 지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큰 에피소드는 바로 '애로사항 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만 딱딱한 뭉툼(?)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종양의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되도록 빨리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 첫 출근도 안 했는데, 수술이라니. **종양을 조기에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애써 위안하려 했지만, 수술비 걱정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님과 대화하던 중에 "저 이번에 수술받게 되었어요."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K제작자님이, '애로사항 지원' 항목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청년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당시에 느꼈던 감사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재단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변화 : 상담 지원>

이렇게 제가 '애로사항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상담 때 제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주신 제작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K제작자님은 평소 사업 관련하여 소통하실 때에나, 취준 관련하여 상담하실 때에나 참여자인 저를 전적으로 존중해주셨고 응원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받다가 감동해서 눈물이 난 적도 있습니다. J제작자님도 제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면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최고의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제작자님들의 상담 덕분에, 취업 후 회사에서 적응하느라 마음고생할 때 제작자님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든든해져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관계적 변화 : 직토링 경험>

취직 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직토링에서 난생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준생, 구름 위로 날다'라는 제목의 IT업계 진입방법 및 직무 소개 관련 발표였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언젠가 외부에 멘토링이나 강연도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첫 출발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첫 외부 발표여서 너무 긴장한 탓에 PPT를 만들면서 며칠을 밤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리허설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발표가 끝나고 관계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직토링이 끝나고 몇 달 후 마법처럼(!) 취준생 분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 취업 고군 분투기'라는 제목으로 외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토링은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인 주니어인 제가 이렇게 취준생 분들께 미약한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의 일상>

아직도 매일매일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는 나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준생일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의 취준 기간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재단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감사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취준생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취준생 분들을 위해 선뜻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과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같은 좋은 지원사업·정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취업 준비와 별개로 여러 방면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네이버 블로그를 구독하거나 희망직종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현업 종사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취준 기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취준생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은 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어두운 길을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누군가는 영상을,
누군가는 개발을, 누군가는 플로리스트를,
그래도 각자 다들 뭔가 하나씩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마저도 없어서 막막했어요.



형식적인 재정지원, 건강관리지원,
심리상담 지원이 아니었어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무의미한 것들로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심리적인 압박이 정말 심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공감해주시고
들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준비해본다는 공시준비도 해봤지만,
결국 공시준비도 비전이나 목표 없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 〈청년맞춤제작소〉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
나를 돌볼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에 급급했던 마음 등
여러가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청년맞춤제작소〉에서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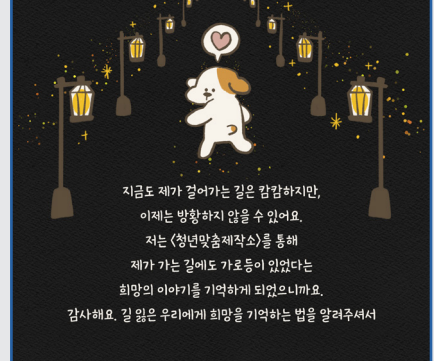


사실 아직도 저는 제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중요한 것 하나는 이곳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해주는 진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고 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걸어가는 길은 험잡하지만,
이제는 방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청년맞춤제작소〉를 통해
제가 가는 길에도 가로등이 있었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으니까요.
감사해요. 길 잃은 우리에게 희망을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 내년에도 만나자!

안예지(청년맞춤형제작소in성남 제작자)

참여자 K는 희망진로를 작성하는 칸에 고민하는 시간도 없이 간호조무사라고 썼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유일하게 해봤던 공부가 간호조무사이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른 걸 시도해볼 엄두를 못 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K는 '하고 싶은', '좋아하는', '잘하는' 진로가 아닌, 적성과 흥미와 상관없이 '해봤던' 경험에 의존하여 진로를 정해왔던 것입니다. 이후 K는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성남제작소 자체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가치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건강'이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턴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는 병원에서 경험과 경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이틀 빠지게 되었고 점점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져 결국 중도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항상 평가를 받아야 하는 환경 속에 살아온 K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괜찮지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이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갑상선 호르몬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한창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나이에 목 부분을 절개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K를 고민에 빠트린 것은 수술비였습니다. 10대부터 혼자 살아온 K는 목돈을 모을 여유도, 고민을 의논할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런

K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했고 무사히 갑상선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K는 밝아진 모습으로 크리스마스에 선물과 감사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작자님 덕분에요. 근데 이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 **"내년에도 보고, 결혼해서 너 닮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볼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거야."**

지난 10개월간 K는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를 찾게 되었고 현장에서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어른들을 만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의논할 수 있는 어른들도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공백들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조금 더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경험과 정보, 역량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를 다니고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험이 충분하지 채 생계를 위해 꿈을 접어두어야만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청년이 자신의 강점을 찾게 하고, 꿈이 없던 청년이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게 해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버텨내야 했던 청년들이 친밀한 동료와 어른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는 취·창업 정보만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서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강점을 찾아주고 아낌없는 칭찬과 지지를 해주는 관계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술잔을 부딪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참여자들과 항상 청년에 대해 고민하는 동료 제작자들 덕분에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지원사업과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청년 결연 청년재단이 있음을

엄준섭(청년재단 교류협력팀 PM)

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만나기 전, 기업과 청년인재 사이에서 일자리를 매칭 해주는 청년 열린채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전형 없이 모든 지원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기업에 한 명이라도 더 입사시키기 위해 집중했고 입사 후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도 병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사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매칭을 위한 지원과 사후관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 실력을 키우고 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가난 등 혹독한 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은 고난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자립역량을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저에게 청년지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사 최종관문을 통과하기까지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 사각지대에 갇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청년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청년들을 보면서 비로소 재단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청년들의 기를 살리고 자립의지를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청년들의 애환을 접하면서 지원의 한계를 체감하기도 하였고, 때론 콧등이 시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보육원·쉼터환경에 있는 보호종료청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이 되어버린 청년.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년.
본인 혹은 가족 질병치료가 시급한 청년.
부모 폭력과 학대를 피해 1인 가구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
부모 이혼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심리상담과 병원치료가 필요한 청년.
경제적 불안감과 가정폭력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장애인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학자금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을 하고 싶으나, 초기 발생비용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청년.
교통비와 핸드폰비,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개인정보 도용 및 사기 등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청년 등.

지자체 및 여러 유관기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많은 정책 및 지원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긴 실효성이 낮은 청년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시기를 놓쳐 더 불안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단비와 같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 10개 청년맞춤제작소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연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했던 이 사업이 참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청년투자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청년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하루빨리 발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립케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합류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전된 사업으로 진화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 결연 청년재단'이 있음을 모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또 다른 나를 찾아보세요.

박정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1기 참여자)

<이 길이 맞을까?>

저는 대학교에서 아동복지과를 전공해 물 흐르듯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지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고 빨리 사회에 뛰어들어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고 일을 하다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평생 갈 수 있을까?',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할까?', '왜?' 분명 내가 위해서 일을 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일들이 자꾸만 궁금해지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거야.'

<새로운 도전은 어렵지 않아>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친한 친구들이 모두 인문계에 눈이 향할 때, 저는 특성화를 외쳤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던 아동복지과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어렵지 않았던 저는 이제야 최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뒤늦게 내 꿈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저를 누군가 진로 상담을 해줄 리가 만무했고 저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작은 기대와 함께 의구심이 솟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어기제였습니다.

'이미 난 다 큰 어른인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 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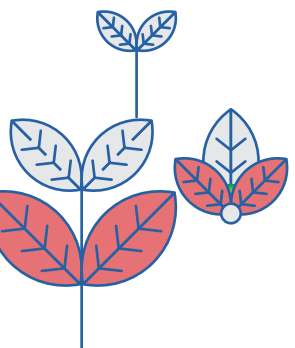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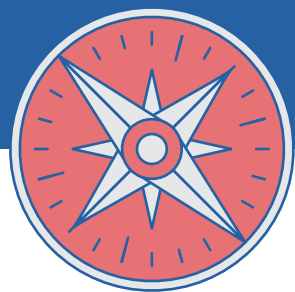
그렇게 나도 모르는 뭔가를 기대하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사업을 통해 진로 상담, 직업 상담 등 끊임없이 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등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며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업에 한 발 가까이하길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방황하는 어른이었던 저는 혼자서 이끌지 못했던 무거운 수레를 누군가 앞장서 끌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 널 도와줄게.'

어른이 된다는 건 '각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쉽게 포기할 수도 기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사막에 내버려진 기분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니, 너도 느껴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나의 길을 찾아 줄 청년재단, 산림종합사회복지관 제작자님들과 함께 한다는 기분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뒤늦은 여정>

저는 제 꿈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 메이크업 아티스트, 친구들 사이에서도 파티를 기획해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니 파티 플래너, 여행을 기획하기도 하니 여행플래너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을 나열했습니다. 메이크업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토익을 배우기도 하고, 파티플래너 기획과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모두 저의 꿈을 위한 사업 지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누군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 낯설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희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학원을 다니며 집으로 가는 길에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며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지켜내려 노력했었습니다.

<위기는 한순간>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 시간이었지만 주변 상황이 모두 저를 돕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이 곧 다가올 무렵,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에 국민이 당황하듯 국가도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모든 시험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 때문에 제가 준비하던 시험들도 제때 볼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잠자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건강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난생처음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직 20대인 저는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위염을 자주 앓았던 저는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유전자 검사에는 몸에 대부분 장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좋지 않은 결과들이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다행히 빨리 치료가 되어 완치하였지만 항상 암을 조심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뭐라도 해보지, 뭐>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 집에서 글을 써보자 했던 것입니다. 평소 웹소설을 즐겨보던 저는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쓴 웹소설은 재미있었고 힘든 저의 시간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쓴 글을 이렇게나 봐주다니, 너무 행복해.’ 어느새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저는 글을 쓰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과 소통했고, 제 글을

출간하고 싶다는 출판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글을 썼더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반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걱정 마, 잘 될 거야>

저의 기다림은 다른 일에 대한 제안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파티플래너와 관련하여 행사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의 무대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자 행사가 적어져, 저는 새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뷰티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성장을 이룬 제 블로그는 협찬을 받으며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수입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하나 싶었던 저는 다른 일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냈던 쇼핑몰의 사장님께서 일의 빈자리가 생겼으니,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언젠가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이제 저는 쇼핑몰의 MD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작가와 뷰티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행사 시나리오 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철학처럼 잠잠한 파도 같은 제 일상에 알록달록한 조약돌들이 기분 좋게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조금 길더라도 잘 이겨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또 다른 나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멋진 나로 돌아올 거예요.’

혹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해보고
스스로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레스토랑도 운영도 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 또한 넘쳐나는 청년이지요.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과 멘토,
해당 자원 사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명 해산물을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을 원하고 했는데
갑자기 원 달았잖아요?
이것 또한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준
청년맞춤제작소 덕분에 생각합니다.



제 원래 꿈은 해산물을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에 대한 열정과 반비례하게
현실적인 문제가 제겐 너무나 큰 벽이었어요.



그러다가 방학하게 된 것이 바르
청년맞춤제작소 인성에서 진행하는
<청년맞춤형 자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창업에 대한 꿈을 무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 닭고지 이숙여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 현실의 벽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열정에 반응해 줄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청년 열에 청년대기업 함께합니다! 청년대기업 청년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정현 (청년맞춤제작소in성남 제작소장)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성남제작소에는 82명의 청년들이 찾아왔고 이 공간을 기반으로 각자의 꿈과 삶의 방식을 찾아나갔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3년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를 느끼는 부분은, 청년들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성장해가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고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전한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청년을 모집하여 진행되고, 1년 뒤에는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다른 청년사업들과 비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1년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작자들은 새로 모집된 청년들에게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전 기수 청년들을 만나고 돕는 역할을 병행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문제들이 청년기에 와서 더 극적인 위기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발 나아가면 두발 물러나야 했고 오래 쉬면서 회복해야 했고 그 시간을

함께 견딘 뒤에야 다시 한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실패했던 자리에서 마냥 머물고만 있는 청년은 없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모두들 다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시행착오의 시간 동안 함께 기다리며 머물러주는 사람, 제작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촉하고 싶고 쓴소리를 하고 싶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마음이 지치면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놀랍고 가슴 벅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청년 A는 20대가 되고 나서 가족과 절연하고 1인 가구 생활을 이어온 고립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제작소를 찾아왔을 때는 수년간의 고립된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았지만, 가족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속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특성과 문제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시도하다가도 갑자기 중단되곤 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가 멈추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A는 완전히 지쳐 쓰러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경제적 위기를 겪고 진로활동을 중단하고 은둔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에 다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적응하고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는 취업생활 적응과정에 또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애로사항 지원, 직업훈련 지원, 제작소 특화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들이 A가 다시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직 알바 경험만 있었던 A는 사무기술을 배우고 사무직 인턴십을 경험하고 기획·마케팅 분야로 취업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 데에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A가 한발 한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청년 B도 혼자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스스로 생계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느라 진로문제 해결에 집중해보지 못했고 뒤늦게 시작해서 개발자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지 못해 감히 시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청년이 꿈꿔온 것을 시작할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첫해는 몇 가지를 경험하고 도전하는 정도로 지나보냈지만, 2년 차에는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았고 3년 차에는 희망하던 분야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B는 함께 세웠던 진로활동계획에서 벗어나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중간 중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불편한 원가정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진로목표를 인정해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도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고 실력을 키워야 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극복해야 했던 B가 그 시간 동안 겪었을 불안과 압박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작자님들은 B가 힘을 내려고 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B는 각자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제작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B는 이제 개발자로 취업해 직장생활에 잘 적응했고, 지금은 멘토나 후원자 역할로 제작소 운영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B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어 했던 저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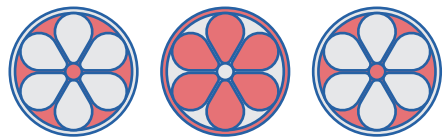
청년맞춤제작소는 프로그램 횟수, 참여 인원 등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청년사업이나 청년공간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겼고, 시간제한 없이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의논할 수 있는 친밀한 상담사이자 선생님이 생겼고, 비슷한 환경과 문제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학교이자 쉼터와 같은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청년들은 회복할 수 있었고, 여러 차례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과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간과 시간을 제한하고, 많은 참여인원이나 취업 실적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직업훈련만으로 지원범위를 한정하는 사업이었다면 청년들의 이런 변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제작자님들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이후 각 지역의 청년지원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청년재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사업들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처럼 청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양한 관계가 연결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각각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에 적합한 행정적 체계를 지속해나가길 바랍니다.

버팀목이자 가능성이 되어준 사업

박경호(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2기 참여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는 2020년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고 본가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던 때라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지원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도움이 된 지원들이 많았는데, 식비 지원이 아무래도 가장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상경하여 직접 원가를 해먹자니 어색하고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비 카드를 들고 집 주변 반찬가게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마음을 써주시며 반찬을 더 담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지원 사업이 끝난 지금도 해당 반찬가게에 종종 들르곤 합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덕분에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 또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타지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공황장애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나 심리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을 것 같았고, 후에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봐 선불리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동안 병원에 가는 걸 주저했던 제가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잘못된 선입견과 불안정한 심리상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주기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공황장애에서 깔끔히 탈출할 수 있었고 불안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동시에 학원비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삶도 함께 만들어주었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머를 꿈꾸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공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에 바빴는데,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학원비 지원은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래밍 관련 학원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학원에서 풀타임 근무를 제의받았고 큰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저에게 2020년의 버팀목이자, 2021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직토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토링에 참여할 당시에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서, 담당자님께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담당자님은 그 이야기조차 듣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참여를 권유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강의(1시간으로 알아보는 개발자의 모든 것)를 듣기 위해 적지 않은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메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간단한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저 스스로를 낮게 보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을 뻔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 다른 참여 청년들과의 마지막 모임도 꽤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곳을 목표로 바라보는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소회를 풀었다면 더 기억에 남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제 근황을 전하자면, 2020년에 만났던 제작자님들과 지원사업의 도움 덕분에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꾸준히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있으며 미뤄뒀던 영어 공부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30살이 되기 전에 유명 게임 대기업에 이직하는 것입니다. 유난히 춥고 좋지 않은 시국이지만, 청년분들 모두 성장을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주신 청년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혼자라면 시작하지 못했을 도전

백단비(청년맞춤제작소in성남 제작자)

안녕하세요. 청년맞춤제작소in성남 제작자 백단비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제작소에서 일하면서 이 사업이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작자로 청년들을 만나 오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 각자가 겪었던 삶과 성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과 격려를 통한 자존감 회복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게는 적절한 조언과 지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진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들도 다양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 주거문제, 가정문제, 재정적 어려움, 사회성 부족, 경험부족, 학력 등 각기 다른 어려움이었고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각기 다른 진로장벽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청년 J는 초기에 자존감이 너무 낮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강이 나쁘고,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매우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시도해 보기 전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향이었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염려가 아주 커서 성남제작소의 자체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는 소그룹 문화동아리활동, 인턴십, 진로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인터뷰 프로젝트, 심리상담 등이 있었습니다.



J는 문화동아리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위축을 덜어내고 다시 관계의 활력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성취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턴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걱정과, 피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지만 청년에게 맞는 적절한 인턴십 현장을 찾아 연계를 하였습니다. 인턴십은 잘 마무리되었고 청년은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한 성공 경험이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직접 인터뷰 질문지를 기획하여 여러 직업분야의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과정을 주제로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공부도 시작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마무리 상담을 할 때 J는 1년 동안 ‘혼자라면 시작하지 못했을 새로운 도전’의 여정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디자인 관련 직무를 시작해보려고 이력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늘 있었던 청년은 ‘일단 경험을 해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재미를 주고 디자인을 센스 있게 잘하는 스스로를 조금씩 발견하는 것 같아 그 모습이 보기 좋고 참 멋져 보입니다.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한 사람의 고민과 염려를 이렇게 세밀하고 고민하고 지원해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겪고 있는 진로 문제와 고민은 그 청년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방향을 세워가는 도우미가 한 명쯤은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제작자로 함께 보내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많은 도움과 협력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누적과 함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듯 해요.

저는 대학교 정문에도 큰 마음이 없었고,
그 때문에 단지 근무만 정전하며 지내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이었지요.



진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겠죠?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나를 알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를 정리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등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직군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고
교육적인 부분의 지원도 모자람 없이 해주셔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 어느 길로 가려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좋았어요.

처음 청년맞춤제작소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어떤 확고한 목표가 있었는지보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은 지쳐있던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작소에서 이런 제 마음을 배려해주셔서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받았던 심리상담 지원은 저의 지침을 위로해줬고,
식비 지원은 저의 하루 한 끼와 하루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해주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거 같은 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제가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단기 근로들로 지쳐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제 스스로 지워져가며 망가지고 있던 때에
청년맞춤제작소를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의 무거웠던 저를 이끌어주시고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용기를 주셨어요.

안정적이긴 행복이라 말하는 사회지만,
불안정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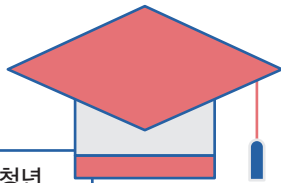


저는 청년맞춤제작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청년 곁에 청년대변인 함께합니다! 청년대변인 청년 여성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송미나(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1기 참여자)



"진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너무 좋겠다." 친구들에게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항상 신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하며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을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현수막을 보고 관심을 가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신청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춤을 포기할까 생각을 하던 찰나 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매달 제작자님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편하게 말하라는 제작자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면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교육비와 식비 같은 경제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수 있게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제작자님들이 계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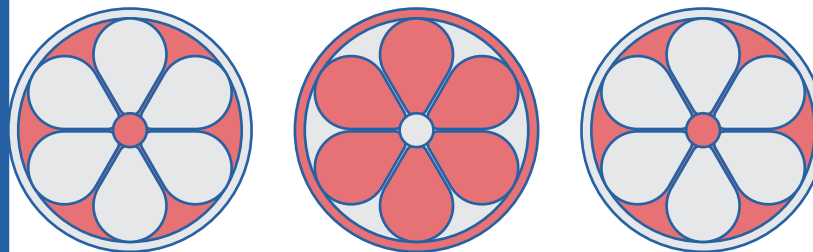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친한 후배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꼭 참여해 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신기하다",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는데 대박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하다가 자연스레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도 참여한 저는 사업내용이 낯설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거나 SNS 검색해도 나오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보다 SNS의 영향력이 더 커진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고 홍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매일 학교, 학원, 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상이라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닭고치 사업을 하는 청년, 플로리스트 청년, 싱어송라이터 청년 등 제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청년들과 함께 재능을 공유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청년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청년들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여 함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불안해하던 시기를 지나

문지예(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2기 참여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고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내의 활동들을 추천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주며, 청년들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20대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받지 못했던 종합건강검진도 받게 되어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었고, 식비를 지원받은 덕분에 돈을 벌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는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잘하는 지도 잘 몰랐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면서 심리상담도 받고, 내가 잘하는 것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등 나 혼자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에 대해 멘토가 되어 이야기하는 직토링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은 예체능 계열을 전공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많지 않아 검색하고 고민하고 데에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했었기에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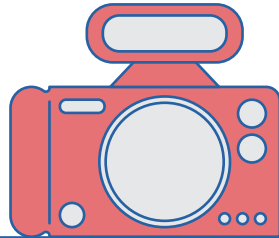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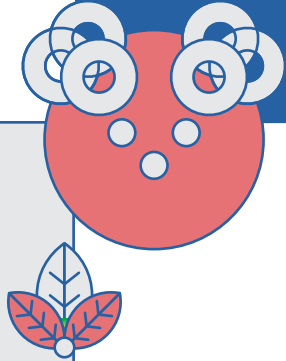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강의 형식으로 얘기해본 적이 처음이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고, 하필 준비 기간에 코로나 부작용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에 준비도 더 많이 하지 못했고, 긴장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분들의 후기도 나중에 받아보았는데 유익했다고 하여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했고,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을 꼽자면 종합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통해서 안 좋은 몸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심리상담이라고 하여 꺼려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파서 받는다기보다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심리테스트 정도의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취업과 창업 모두 컨설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취업과 창업 두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했는데, 직업 체험 활동으로 공방을 운영 중인 분을 멘토로 찾아뵙게 되었고, 공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물어보고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에 멘토님과 인연이 닿게 되어 함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좋은 경험과 능력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담당인턴, 그의 뒷이야기

송채원(청년재단 2021년 하반기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인턴)



저는 처음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을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면도 많았고, ‘내가 해도 되는 걸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등 생각이 많았는데, 고민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현재는 전처럼 고민만 하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고려하면서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불안해하던 저는, 이제 조금해하지 않고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지내는 방법도 터득하여,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사업에 꼭 참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 아깝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도 많고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직토링 운영을 담당했던 인턴 송채원입니다. 2021년 여름, 저는 청년재단 맞춤사업팀의 인턴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로 가득 찼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보조 업무를 하였는데요. 삶의 질 향상 및 취창업 지원 관리, 직토링 운영, 산업인력공단 멘토링 포스터 제작, 결과공유회 기획 및 운영 등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업에 매우 큰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토링 : 13명의 청년 이야기>

특히, 직토링(‘청년이 직접 만드는 멘토링’)은 제게 조금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직토링을 처음 만났을 땐, ‘직토링’이라는 프로그램만 있었고 기획부터 운영방식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직토링 운영계획 수립, 참여 멘토 모집,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진행계획 수립, 포스터 제작, 홍보 및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구성하고 13명의 멘토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습니다.

멘토로 참여하는 것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는데, 직토링을 마친 후 즐거웠고 하길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직토링을 통해 청년 담당자로서 청년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었고, 문서상으로만 접하던 청년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한 프로그램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년 멘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모인 사람들>

사업 결과공유회였던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도 정말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직토링에 참여한 멘토 분들 중 일정이 맞는 네 명의 청년이 패널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직토링으로 이미 만났던 청년분들이라 정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플로리스트 청년과 꽃을 이용해 공간을 꾸미고, 요식업 창업 청년과 다과를 준비하는 등 청년 분들과 함께 결과공유회를 만들어갔기에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참여청년과 제작소 이야기를 진행할 질문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각 답변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청년 분들과 제작자님들의 사업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결과공유회를 준비하며 즐거우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공유회가 사업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청년지원사업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결과공유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맞춤형사업팀을 만나고>

저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서의 ‘상대방’은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바쁜 일정으로 직토링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 멘토에게 샘플 자료를 만들어 주기,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연락할 때에는 청년들이 연락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조용화 팀장님의 조언과 섬세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저의 멘토이신 팀장님을 보며 저도 항상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만난 건 제게 매우 큰 행운이었고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마무리되더라도, 청년재단은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으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은 분들이 재단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만난 모든 청년들, 제작자님들, 그리고 청년재단 맞춤형사업팀의 조용화 팀장님, 윤형주 매니저님, 이수연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은 설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곳에 청년들이 찾아왔다는 건
누군가의 진실된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1년을 보낸다는 이야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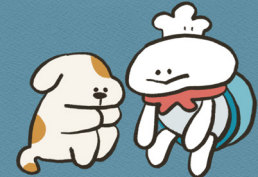
처음에는 청년들이 낯을 가리기도 하고,
저희의 진실이 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한 분마다 의미를 두고 일했기에
그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마음을 풀려보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저희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청년들도
종종 나타나긴 했었어요. 당연한 거죠.



언제나 으쌰으쌰 하는 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상보다는 현실의 청년들을 도우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 그들에게 손을 열심히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가 제일 기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게
저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만 보낸 건 아니었어요.
받은 것을 돌려보내보자는 취지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청부기 꿀 꾸きを 나누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내민 손을 잡고
다시 나아가려고 할 때,
저희는 그 청년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사랑해요!!



시작이 같을 수 있다면, 애로사항지원금

오창식(대구광역시청년센터 본부장)

어느덧 3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떼려는 청년들에게 지금 펼쳐진 시대상황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사회진입의 지연, 고용시장 악화, 주거비 상승, 관계의 단절 등의 쉽지 않은 시대적 환경의 한가운데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갑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성과 성평등, 환경보호 등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이중 단연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공정성'이 아닐까 합니다.

공정성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이슈가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정규직화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기성세대들에게는 청년들의 논리가 생소했습니다만, 이 시대 청년들이 가진 박탈감이 어떤 것인지, 경쟁의 극한에 다다른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경쟁에서 낙오되더라도 보호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이기에 저에게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애로사항 해소지원금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청년재단에서는 지난 3년간 청년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지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소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을 만나고 지원하는 사업실행은 각 지역의 청년맞춤제작소에서 해왔습니다.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식비 지원, 종합건강검진지원 등 청년들에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큰 장점입니다. 애로사항 지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계비였으며, 가족부양·주거·질병·학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연은 단순히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중력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로사항 해소지원금이 그들 삶의 출발선을 확연히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들이 출발선에 섰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고 사회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애로사항 해소지원금 심사를 통해 만나게 된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삶에 청년재단의 사업이 용기와 희망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은 분야와 예산 모두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정책이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청년정책이 담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절망과 좌절의 풍경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꿀 수 있는 풍경을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V.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우리가 만났던 이야기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이란?”이라는 부제와 함께,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3개년 추진결과를 공유하며 참여청년과 상담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통하여 향후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자리입니다. (2021.12.9.(목) 14:00~17:00)



Q.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나요?

A. 박상현 : 서울시 청년포털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A. 백진주 :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가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업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Q.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만나기 전의 나는 어땠나요?

A. 김예일 :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능력과 아이디어만으로 무언가를 실현하기엔 리스크가 컸고 어떤 큰 벽이 앞을 막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A. 박상현 : 의욕은 있었지만 실천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으며 천천히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수업이 배정되었을 때에만 출근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정규직을 구하기 위해 많은 구직활동을 했지만, 원하는 분야에서의 취업이 쉽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A. 백진주 : 대학 졸업 후 플로리스트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많이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A. 이아진 : 카페 직원 경력이 두 곳에서 각각 1년 조금 덜 되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탈가정 이후 돈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져 카드빚과 대출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었고요. 해당 사업을 처음 알고 찾아갔던 시점에는 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Q. 단순 청년지원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이점은?

A. 박상현 : 단순 지원이 아닌 건강, 심리, 금전, 사고 등 한 청년에 대한 상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점 같습니다.

A. 이아진 : 모두 그렇겠지만,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의 청년만 생각한다면 단순 청년지원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미 맞춤형 도움을 주변에서 받고 있을 테니까요. 이 사회가 그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부분도 있으니깐요. 저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주관이 뚜렷하고 공격적이기도 한 성격, 정신 질환, 탈가정, 학력, 경제적인 상황, 집 계약 방식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만약 저학력자 대상의 사업이었다면 저는 정신질환이나 집 계약 문제로 무너져 도중에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상의 사업이었다면 현 직장엔 취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이를 먹고 취업은 더 막막해지며 지금보다 덜 좋은 직장엔 다니거나 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에 참여한 후 지금의 나는?

A. 김예일 : 창업에 성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창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금전, 능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하여 지금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어떤 사장님 밑에서 제 삶에 불만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앞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많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A. 박상현 : 제 진로와 관련된 목표와 계획이 더 명확해졌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없었다면 제가 희망했던 직업인 음악인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시기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취직만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A. 백진주 :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해나갈 수 있었고, 덕분에 작은 꽃집까지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이아진 : **밤에 꾸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만큼 막연한 '꿈'이었던 것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 오기까지 크고 작은 발판들을 경험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데에 좀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예외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염치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급식비를 지원받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공지되어있지 않은 도움도 문을 두드리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도움을 청할 때마다 여러모로 실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 동시에 제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역시 필요한 존재이기에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A. 김예일 : 제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업과 봉사를 하며 하루하루 저와 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A. 박상현 : 제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확실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 백진주 :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플로리스트로 전향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제 역할인 플로리스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A. 이아진 : 저를 이루는 것들을 세상에 펼치고 싶습니다. 정신질환, 탈가정 같은 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며 내가 받아들이고 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국 사회를 향해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기에 탈가정에 관한 목소리를 시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삶의 최종 목표라면, "재미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Q.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은?

A. 박상현 :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원하는 것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삶을 주도해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이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김예일 : 지금도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금전적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 백진주 :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짧게라도 일을 해볼 수 있는 인턴십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이아진 : **가정 내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청년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청년을 위한 구직 수당을 예로 들자면, 1인 가구이거나 가정 내에 지원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2부

· 누구와 : 지역제작소 상담사 이정현(이하 성남), 손유미(이하 관악),
장서현(이하 성북), 이정희(이하 청주), 안희정(이하 원주)

Q.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나요?

A. 관악 :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르기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동시에 가장 걱정되었던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가장 컸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를 텐데 과연 내가 그러한
다름에 대해 얼마나 개별화하여 만날 수 있을지, 누군가의 삶에서 한
파트를 함께하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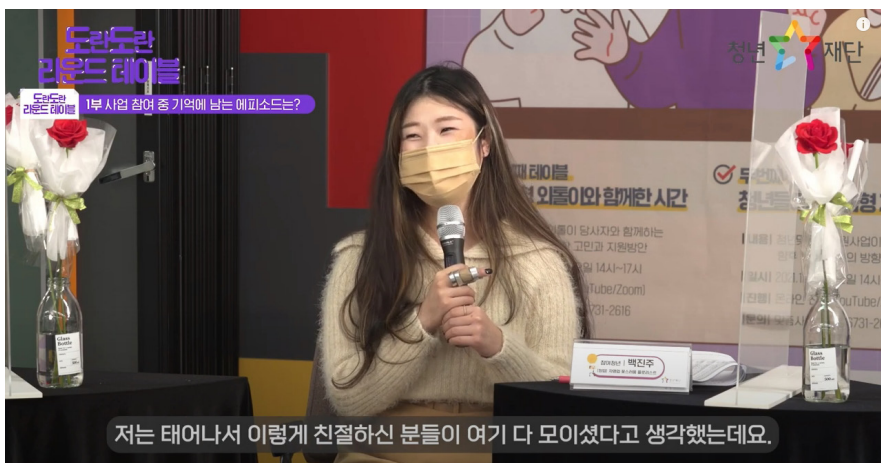
A. 원주 :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는 '선행'과
동시에 그동안 너무나 바라왔던 이상적인 사업이라 실현시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걱정'이 함께 들었습니다.

A. 성북 : 대상자의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사업을 알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관악 : 청년들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두 각자의 강점과 개성을 지녔으며, 다르지만 동시에 비슷한
걱정거리들을 한 아름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저 또한 한 청년으로써 저라는 사람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A. 원주 : 1차 연도 사업은 정말 발로 뛰면서 신청자를 모집했고, 32명의
사전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라는 한 마디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평평 울고 갔던 기억이 먹먹하게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다고 생각했는데요.

Q. 서로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상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는?

A. 관악 : 가장 첫 번째는 진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타인에게, 심지어 그동안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아닌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건네주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진심으로 청년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며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양해를 구하고 메모를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청년을 만나기에 혹 나중에 헛갈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적는 것이 사람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개개인의 정보를 잘 기억하는 편이었고, 더불어 저희는 청년들과 단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닌 약 1년간 지속적인 만나며 앞 뒤 상황들이 이어지는 대화를 하기에 개별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기억하고자 더욱 노력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기에 갈수록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 원주 :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A. 성남 : 청년의 문제유형별로 몇 가지 대응모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대인관계 부담을 가진 청년들은 내밀한 소모임을, 욕구는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은 다양한 만남 연결을, 성취감이 부족한 청년들은 일경험 인턴십을, 학습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직접적인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등으로 말이죠.

A. 청주 :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자주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A. 성북 : 청년들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고 기억했습니다.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했는지 등 작은 것들을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청년들이 묻지 않아도 본인의 고민을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놓치지 않고 이를 기억해두었다가 다음에 물어보거나 혹은 먼저 연락을 취해서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라포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사업을 지원했지만 선발되지 못한 청년 중 기억에 남는 청년은?

A. 관악 : 많은 청년들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고, 모두 신청한 이유가 있고 각자의 스토리를 알기에 선발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안내함에 있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미선정 안내 문구를 팀 내에서 머리를 싸매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작성하고, 개별 피드백 메시지도 담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전인터뷰가 약 20분 정도로 매우 짧았음에도, 미선정 안내 문자에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 위로받았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등의 몇몇 답장을 받았고, 짧은 길든 그 순간에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 성남 : 서른 살 된 여성 청년이 있었는데, 3년간 매번 문의만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인데 취업해서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가 끊긴다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신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A. 성북 : 한 청년의 경우, 등본상 청년의 아버지도 등록되어있어 소득분위에 대한 서류도 구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거주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건강보험납부에 대한 요청이나 실주소지로 등본 등록을 할 경우에 청년의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어 서류 구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른 결혼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했던 청년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경력도, 경험도, 스펙도 없어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청년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선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정 이후, 청년의 거주지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년센터의 지원정보를 공유해주어 청년이 지속적으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원주 : '개별 맞춤형'이라는 지원 방식이 청년 개인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며 강점이다.

Q.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A. 원주 :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취업한 청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원가족 내에서 장기화된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심리상태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독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성남 : 법률지원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법적 문제 때문에 진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률상담 수준이 아니라 변호사가 함께 문제해결을 해주는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사업에 참여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A. 성북 :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생명을 포기하고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잠을 자보려고 할 수 있었고, 힘이 들 때 힘이 든다 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스스로를 위하고 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청년재단을 통해 받은 것들을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Q. 본인이 소속된 제작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A. 관악 : 네 편. 관악제작소는 참여자 종결 시점에 '너의 줄UP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함께한 경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나에게 청년맞춤제작소란 OOO이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에게 제작소가 어떤 곳으로 느껴졌는지 묻는 파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남은 표현이 '내 편'이었습니다. 관악제작소와 저는 참여 청년의 편에 서서, 싫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며 온전히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뢰감 있는 존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애썼고, '내 편'이라는 표현에서 그러한 마음이 청년에게 전해진 것 같다고 느꼈기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A. 성남 : 끈질긴. 놓지 않는. 기댈 언덕.

A. 원주 : 비타민D. 원주제작소가 위치한 상지대학교는 캠퍼스가 넓어서 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날은 청년들이 오래간만에 비타민D를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도 비타민D와 같은 존재이고 싶습니다.

A. 성북 : 롤러코스터. 다른 대상자에 비해 청년들의 상황은 보다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과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또 청년들이 바라보는 진로의 방향도 다르며 원하는 개입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Q. 사업을 마친 본인과 제작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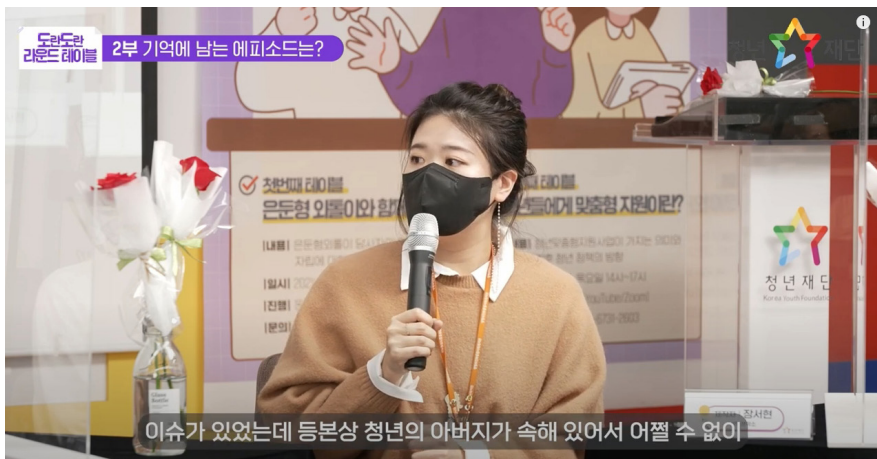
A. 원주 : 사는 게 참 팍팍하지만 용기 내어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사람들은 어디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해 애쓰셨던 모든 제작자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A. 성북 : 사회복지사이자 청년으로서 청년을 만나는 경험은 너무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청년의 삶의 변화들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A. 관악 : 짧은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고 그렇기에 유의미한 결과들도 마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와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지금의 청년,

앞으로의 청년을 위해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A. 성남 :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 작은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일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부

청년 지원사업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갖는 함의

기현주(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정해진 길을 정해진 대로 가더라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청년의 삶과 고민도 균질적이지 않고 다양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라는 건 지금의 청년층이 갖는 공통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청년지원 영역은 기존의 복지·노동 영역과는 다르게 청년층이 갖는 이행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시에, 집중적으로,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3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개별적", "종합적"**,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로 5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청년정책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별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아 왔지만 개개인의 정형화되지 않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상담을 위한 공간(제작소)을 확보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이 높은 인력을 배치해 30여 명의 청년을 밀도 높게 지원했던 본 사업의 사례가 정부에서 청년지원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정책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존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청년지원만으로 청년을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각

청년지원사업

‘자존감’
‘개방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지원’
‘이해의 특수성 - 적시, 집중, 유연’



공동대표 |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 제작소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결하고 산재된 청년 정책들을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했던 노력과 전략이 유효했고 청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청년이 삶에서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위기상황에 즉각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액 기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당장의 교통비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함으로써 청년의 삶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면, 보다 많은 자원이 모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의 진로 변경, 사회진입 유예 등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있어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교류를 통해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집중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발달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을 일반 청년으로 열어놓음으로써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어려움을 넘어서서 어떤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더 취약한지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지원 분야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트랙뿐만 아니라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트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지원기간 확대,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감정적 교감에 수반되는 피로도 완화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초연결시대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고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갖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니트의 현실과 청년 지원사업의 방향

남재욱(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 니트의 현실과 그에 맞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청년 니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ECD 정의에 따르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15~29세 청년을 니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공유된 개념은 아니라서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니트의 연령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실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니트로 분류할 것인가, 혼인·가사·육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을 니트로 볼 것인가, 이 3가지 부분에 대해 나라 간, 문화 간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길어진 이행과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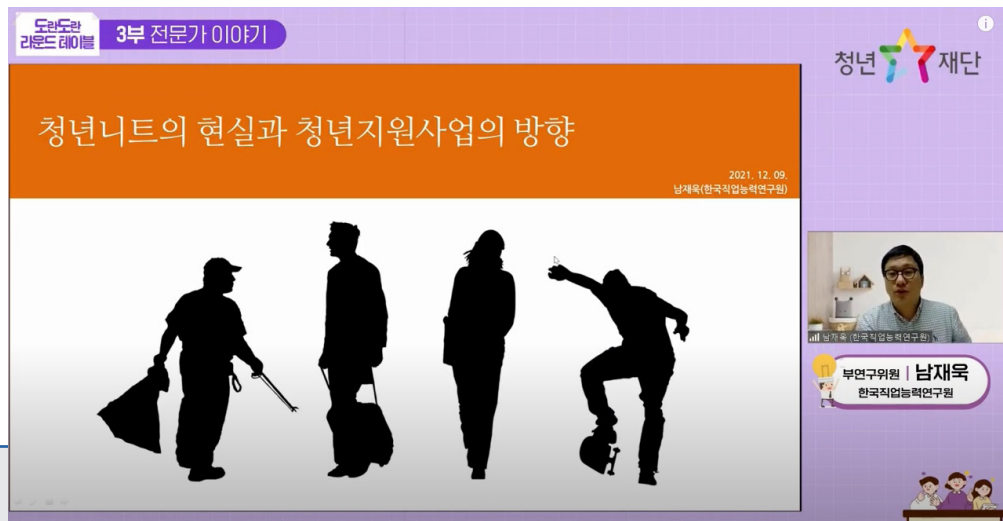
다음으로 니트가 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자격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신감 결여, 업무경험 부족 순으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도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니트가 되는

요인을 학력, 교육,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청년 개인으로부터 찾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자체가 희소자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부 일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니트 청년을 보고 눈높이의 문제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일단 질 낮은 일자리로 진입했을 때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나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 고압적인 상사, 감정노동, 고객 갑질 등 위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경험이 일터에 정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로 올수록 민주화된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이런 구습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계적인 분석으로 니트의 요인을 알아보았지만, 사실 세분화해서 보면 동일한 요소가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졸은 남성이, 대졸은 여성이 니트가 될 확률이 크다는 연구도 있고, 똑같은 고졸이어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취업에 불리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족배경도 평균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이 더 크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니트 상태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은수저 증후군도 있습니다. 즉, 학력, 성별, 지역, 연령 등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같은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서도 천착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 니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과정에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듯 **청년 니트도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별적 어려움에 맞춰 대응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 정책을 전달하는 접점이 청년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정책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청년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니트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청년이 거치게 되는 이행과정의 어느 시기에 니트라는 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적합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니트라는 단계가 이행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년의 생애주기를 종단적으로 보고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사회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밀어 넣는다고 청년의 이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청년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일터 자체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청년들이 취업 후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원가정의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전달과정에서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정책은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통제력을 주고(empowerment) 지원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지원사업인 서울시 청년수당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더 많이 확대되고 풍부한 자원과 함께 제공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하에 “다양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조금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갖는 의미

강보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저는 청년맞춤제작소in제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지역 청년정책 변화 과정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청년의 소외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할 때 일자리 자체의 부족뿐만 아니라 나만의 일을 만드는 상상도 해보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충분히 나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지원해주는 환경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농담 삼아, 지역에서의 직업교육은 바리스타, 평생교육은 꽃꽂이 강좌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층에서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적은 인원이더라도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청년 이행기 속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그러한 지원의 사례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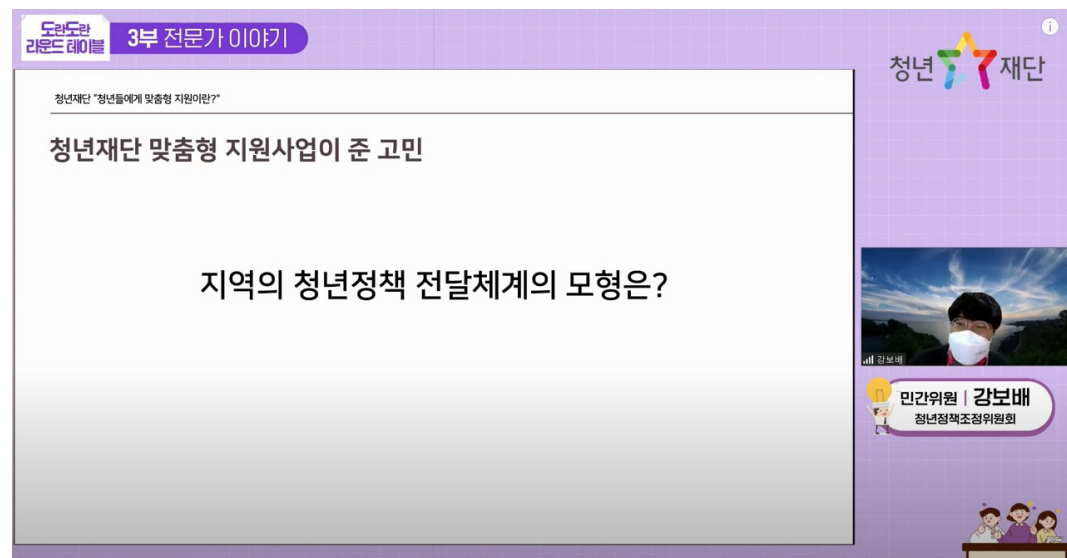
청년센터의 경우,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85개의 청년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전달체계 확산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모형으로 무엇을 지원해야할지 등에 대한 설계도 여전히 부족하고 개수도 지역적인 편차가 큼니다. **제주에는 5개의 청년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지원체계를 갖고 있기보단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 마련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수당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국화된 것은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 사업 이후 청년센터가 곳곳에 설치되고 다양한 지원과 연결이 함께 이뤄졌으나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화하여 제공하면서 체계를 구축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1~2명의 직원이 8~900명을 커버하다 보니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당을 매개로 여태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연결고리를 걸어준 건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나, 우리가 원했던 방식인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도 활용처에 대한 설명이나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책을 사는 데에만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며,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보단 농촌, 부동산 소유자보단 세입자 등 더 높은 강도의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사회적 연결망이 잘 형성된 사람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작업은 훨씬 어렵습니다. 지역에 수많은 전달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역할이나 부족한 감수성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소외된 청년을 위한 풀을 곳곳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도를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는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혜택을 넘어서서 각자의 환경에 맞춰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지원모델의 상을 제시해주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각지의 제작소와 제작자님들께서 지역사회에 지역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할지 이야기해주셨던 내용들이 곳곳에 흘러 들어가 **청년사업에 대한 상상력을 넓혀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재단이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경험을 활용하여 전국의 청년을 포괄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고 곳곳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일

2022.3.

발행인

정범구

기획

맞춤사업팀

디자인

파이카paika

발행처

재단법인 청년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3층

전화 02-6731-2600

홈페이지 www.yhf.kr

본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글과 이미지는 무단복제를 금하며,
(재)청년재단의 사전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